

2002

# 청소년 교통학교

Youth's report on the traffic environment in Seoul



2002

# 청소년 교통학교

Youth's report on the traffic environment in Seoul





**청 소 년    교 통 학 교    1 기**

1조는 이렇게 .....	08
2조는 이렇게 .....	18
3조는 이렇게 .....	26
4조는 이렇게 .....	33
5조는 이렇게 .....	41
6조는 이렇게 .....	50
7조는 이렇게 .....	57

**청 소 년    교 통 학 교    2 기**

1조는 이렇게 .....	70
---------------	----

**청 소 년    교 통 학 교    3 기**

1조는 이렇게 .....	82
2조는 이렇게 .....	90
3조는 이렇게 .....	97

**청 소 년    교 통 학 교    4 기**

4기 예비운전자 교육활동 .....	110
4기 예비운전자로서 나의 다짐 .....	112



최소년 교통안전

... 1기

CS-4









## 청소년 교통학교 1기

**일시** 2002년 8월 2일(금요일) - 3일(토요일)

**장소** 합정동 마리스타교육관

### 일정

---

8월 2일(금요일)	14:00-15:00	집결 및 조나눔
	15:00-16:00	눈길 나누기(레크레이션)
	16:00-18:00	강 의
		- 우리나라의 보행환경 실태 및 교통서비스에 관하여)
		- 교통에 대한 이해
		-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는?
	18:00-19:00	식사 및 휴식
	19:00-22:00	조별 토론 및 결과 발표
		- 현장체험 기본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별현장체험 주제선정
		- 조별로 설정한 주제 및 조사방법 발표
	22:00	취 침

---

8월 3일(토요일)	7:30	기상 및 체조
	8:00-8:30	아침식사
	8:30-12:00	현장체험 조별 토론내용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체험 시행
	12:00-1:00	점심식사
	13:00-16:00	조별 토론 및 발표
		- 문제점을 중심으로 체험소감 발표
		- 연극,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내용 발표
		- 정책제안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16:00	평가 및 마무리

# 1조는 이렇게

## 조사목적

현재의 보행환경이 과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마음놓고 걸을 수 있는 것인지 청소년의 눈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견고싶은 서울 만들기에 대한 인식의 계기 제공

## 조사구간

종각역 - 국세청 - 조계사 - 종로구청 - 미대사관 - 경복궁

## 조사방법

휠체어를 체험 도구로 하여 지하철을 이용하여 교육장을 출발하여 종각역에 도착한 후 보도와 횡단보도만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 조사도구

휠체어, 카메라

## 조사내용

보도블럭 관리상태, 휠체어 이용시 불편사항 등



## 조사학생

- 김명수(충암고2)
- 박한별(백양중1)
- 박한솔(백양중1)
- 박현화(저동중1)
- 엄태웅(신한고1)



## 조사결과

### ① 보도블럭



❶ 보도블럭이 깨진 곳도 있고 일부 보도블럭은 심하게 들리는 곳이 있어 보행이 불편하다.



❷ 보도블럭이 깨진 곳에는 비가 오거나면 빗물이 고여 있다.

### ② 횡단보도



❶ 차도는 계속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을 해서 보도와의 단차가 심하게 발생하여 경계부에 물고임이 심하다.



❷ 횡단보도의 노면표시가 지워져 있어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불편을 초래한다.

③ 보도점유



➊ 보도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휠체어는 물론 일반 보행자도 편하게 다닐 수가 없다.

➋ 보도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광고판 같은 것을 내놓아서 보행공간이 더욱 좁다.

## 1기 1조 체험소감문

엄태웅(신한고2)

✳ 봉사활동 점수를 얻기 위해 청소년 교통학교에 참가한 나로서는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귀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각한 것과는 달리 친구들과 다른 조로 뿔뿔히 흩어져 편성되어 실망을 했다. 청소년 교통학교의 첫 진행은 레크레이션 활동이었다. 그런 레크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매우 싫어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어 그나마 할 용기가 있었다. 우리는 레크레이션을 마치고 밥먹고 그 전에 다음날 실제 참여할 교통프로그램에 대해서 토의도 했다. 나와 같은 조가 된 명수만 빼고 다른 녀석들은 각각의 조장이 되었다. 조장이 되어 자기 조의 계획을 발표할 때 나의 마음은 매우 흥분되었다. 우리는 깊은 밤이 되도록 실컷 웃은 다음 피곤한 몸을 잠으로 달랬다.

다음날, 아침에 내린 비로 인해 계획이 다시 그 다음 날로 연기될 수도 있었지만 다행이도 하늘은 우리 편이었다. 늦었지만 각 조는 자신들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를 해서 한 조씩 나갔으며 우리 조는 거의 마지막에 이곳의 정문을 나갔다. 휠체어를 타고 서울의 중심부를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 이곳 저곳에 보통 사람이 무심코 지나칠 낮은 턱도 휠체어를 탄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어려움이었다. 더군다나 보도에 주차된 차들과 상점의 물건들, 넓게 늘린 보도를 막는 원인이었다. 그렇게 도로의 주인공인 보행자의 불편 뿐이었다. 공사장 또한 한몫을 했다. 공사장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는 보행에 불편을 주었고, 가는 곳마다 깨진 벽돌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에서의 휠체어 운전은 너무 난감했다. 최근에 생겨난 지하철 노선은 매우 편리했다. 오래된 노선들은 매우 힘들고 지치게 하였으며 리프트가 없고 배려를 위한 낮은 경사도 없었다. 더군다나 새로 생겨난 노선들의 경사도 휠체어를 이끌고 쉽게 올라갈 수도 없었다. 팔힘이 좋지 않은 이상 매우 잔혹한 정도였던 것 같다.

청소년 교통학교의 주최 목적은 걷고 싶은 도시라는 부제가 따랐다. 물론 주제가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교통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가꾸어 나갈 것이라는 생각 또한 들게 되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앞으로 도시의 주인공이 되어 뜻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이 되고 싶다.



박한별 (백양중1)

✧ 교통학교를 마치고 난 후... 너무 아쉬어졌습니다. 처음에 좀 잘 놀걸 하는 후회 .. 이 시간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1조와 함께 휠체어를 번갈아 타며 이곳, 저 곳을 살펴보고, 장애인들이 거리를 다니는 데에서 나오는 불편한 점, 문제점을 직접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휠체어를 타면서 흠이 생긴 보도, 턱이 높은 곳, 횡단보도가 없는 위험한 도로,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곳, 보도 위의 여러 가지 길을 막는 상인들의 장사, 보도에 경사가 있는 곳,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 보수공사가 잘못된 곳, 하수구의 방향, 인도가 좋은 곳, 인도가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곳, 불법주차가 되어있는 차, 차들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도로, 평평하지 못한 도로와 보도, 리프트가 없는 등등의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라고는 지하철 한곳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장애인의 마음, 불편함을 모르고 자기들은 편하니까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들은 차에게 우리가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 고정관념도 사라졌으면 합니다. 솔직히, 저는 장애인을 보면 싫고, 기분이 나빠서 중얼거리며 멀리 피해 갔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에게 그런 따가운 눈길을 주지 않고 그냥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겠습니다. 정말 이

교통학교에 와서 장애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제 2기 청소년 교통학교때도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한솔(백양중1)

\* 이제껏 교통수단이 편리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장애인들은 우리에게서 쉬운 교통수단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동차나 지하철, 보도, 도로는 보통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쉽다. 오늘의 체험으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 있었고, 장애인도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도로와 인도가 없는지 모르겠다. 지하철에서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앉을 수 있는 곳도 없었고, 휠체어를 댈 수 없는 곳도 많았다. 휠체어 전용 엘리베이터는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그리고 보도도 대부분 블록이 깨지고 갈라지고 움푹 패인 곳이 많고, 신호등도 없고 턱이 높은 곳도 있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버스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없고 오히려 태우지 않으려는 버스들도 많다. 택시 또한 착한 택시기사라면 몰라도 태우지 않으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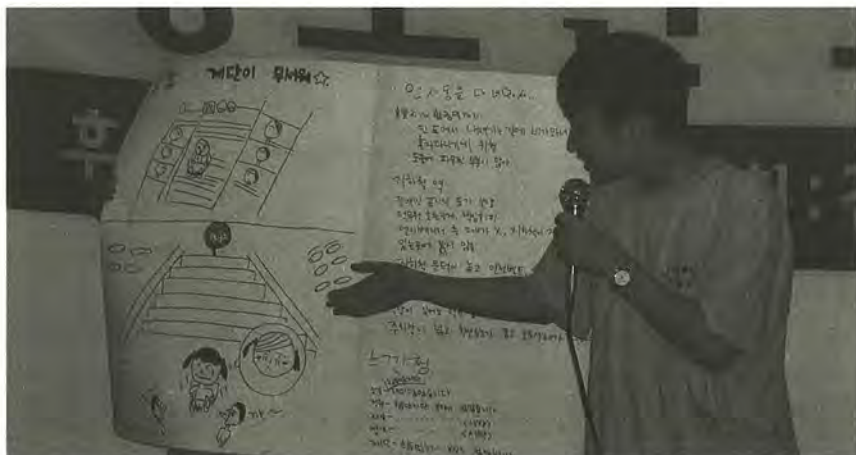
이 체험을 하기 전에는 휠체어를 타는 것이 창피했고, 그냥 재미있기만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수많은 교통수단 중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단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사람들이 살면서 사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100%중에 약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을 돈이 있으면 차라리 더욱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느꼈다. 정치가들은 늘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어려운 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는게 정말 한심하다.

김명수(충암고2)

\* 생각보다 편안히 체험활동을 마쳤다. 우리가 다녀온 곳은 합정역에서 출발하여 종로구청, 미대사관을 거쳐 경복궁까지 갔었다. 종로거리 에서는 길이 넓고 포장 이 잘되어 있었지만, 곳곳에 있는 노점상과 많은 사람들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게 힘들었다. 그리고 지나갈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다. 지하철을 탈 때도 많이 힘들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있는 지하철은 몇몇 곳 뿐이어서 지하철을 오르내릴 때에는 항상 둘 또는 셋이서 휠체어를 들고 다녀야만 했다. 만약에 지하철에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시설이 있었다면 장애인들이 좀더 쉽게 다닐 수가 있었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경사진도로, 길이 공사로 인해 많이 끊어져 찾길로 다녀야만 하는 곳, 길이 울퉁불퉁 하고 흙이 파여 쉽게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곳 등 곳곳에 조금씩 아쉬운 곳들이 많이 있었다. 걸어 다닐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휠체어에 타보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한다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록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던 체험활동이었다.



박현화 (저동중)

✱ 청소년 교통학교를 마치고 난 후 ... 너무나도 재밌었다. 체험학습 하기 전에는 무척이나 휠체어 타는 것이 쉬운 줄 알았다. 그래서 무척 기대되었다. 첫 번째로 타는 사람이 나왔다. 맨 처음에는 내려가는 경사라서.. 김명수 뼈짜 마른 오빠가 끌고 내려가 주었다. 나는 종로까지 타고 가기로 했다. 교육관에서 종로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종각역에는 리프트가 없어서 선생님과 2명의 오빠가 내가 탄 휠체어를 번쩍 들어서 저~밑에 까지 데려다 주었다. 실제 장애인 혼자 내려 갈려면 못 내려가고 지하철이 아닌 버스를 타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경복궁까지 결국은 가지 못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횡단보도만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었는데, 횡단보도가 없었다. 장애인들은 경복궁구경도 하기 힘들 것 같다.



## 1기 1조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엄태웅(신한고2)

\* 여러분 저는 서울시장후보 엄태웅입니다. 현재의 모든 나라들은 산업혁명 이후 진행 과정들이 매우 비슷합니다. 물론 겪고있는 후유증 또한 매우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환경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70년대와 80년대의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 급성장 이후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전과 같은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한국의 미를 점점 잃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서양의 구조와 비슷비슷한 건물들, 그리고 인체에 매우 해로운 매연을 내놓는 수 많은 자동차들, 공장들의 폐수 등.. 이렇게 많은 것이 우리의 생활에 피해를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 엄태웅은 여러분 앞에서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걷기 쉽고 편하고 안락한 인도를 가꾸는데 힘쓰겠습니다. 물론 장애인의 입장에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 즉 장애인이나 환자들 또한 이용하고 싶은 거리를 가꾸겠습니다. 지하철의 장애인이나 환자들 또한 이용하고 싶은 거리를 가꾸겠습니다. 지하철의 장애인 리프트를 늘리고 경사또한 아주 길고 낮게 만들 것입니다. 보도의 턱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일대는 외국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매우 많은 곳입니다. 더욱 편리한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철을 꼭 이용하지 않고도 지상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외국사람들 또한 찾는 목적지 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보행자에게는 장애인을 위한 또한 외국인을 위한 도시건설에 힘쓰는 그러나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서울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충암고2)

\* 내가 서울 시장이라면 차없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차가 없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므로 차가 적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 서울 곳곳을 보면 걸어가는 사람

보다는 차를 위한 도로와 공간이 더 많다. 덕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불편하더라도 참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보다는 사람을 위한 도로, 차가 없어도 편안히 다닐 수 있고, 보도를 넓혀 누구나 쉽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10부제를 강제이라도 실행시키고 싶다. 요즘 거의 말뿐인 10부제가 아닌,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10부제를 실행시켜 조금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 차가 없어도 불편함이 없고 누구도 편안히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 박한별(백양중1)

\* 내가 서울 시장이라면... 자전거 이용이 많은 그런 도시, 환경이 깨끗하고, 청결한 곳이 있는 곳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편안함과 자율적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인건 사람이건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평등하게 만들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늘리고, 같이 편안히 거리낌없이 지낼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되도록 가꾸어 나갈 것 입니다. 서울에서 만이라도 정말 누구나 이곳에 와서 살고싶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위해, 아니 시민들을 위하여 한몫을 다 바쳐 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서울 시장은 정말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이 나오게 하도록 노력을 해볼것입니다. 옛날의 그 아름답던 자연환경은 계속 유지하며 시설은 최대한 편리하고 청결하고 꼭 필요한 것을 이용하게 할 것입니다.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타당한 것을 골라 잘못된 점은 고쳐줄 것 입니다. 모자라는 곳은 하나씩 채워가며 매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 박현화(저동중1)

\* 내가 만약 서울시장이라면 경복궁에서 횡단보도가 없는데 장애인과 모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를 만들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본 지하철 중 1군데만 빼고 나서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없었다. 그래서 외국에서 혼자오신 장애인들은 지하철을 못간다. 혼자서 말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지하철을 내려 가려면 힘 좋은 사람 2~3명이 휠체어를 들어야 하는데 리프트가 없어서 못 내려 간다. 그래서 나는

리프트 2대씩 설치해 놓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나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하기보다 사람을 위해 운영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통수단 보다는 사람이 더 소중하게 때문이다. 그리고 휠체어가 전철을 타면 문쪽에 밖에 있을 수 없는데 노약자 옆에다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또 인도가 너무 좁고, 물건과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좁고 물건과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못나오도록 법을 만들고, 좁은 인도는 인도를 넓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박한솔(백양중1)

\* 내가 서울의 시장이라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고 싶다. 교통에서도 잘 관리하여 사소한 것도 자세히 만들고 싶다. 시장이라고 지시만 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내손으로 하고 싶다. 장애인들도 불편하고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것은 잘 고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시장이 되고 싶다.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은 아니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시장이 되고 싶다. 작은 사랑이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온 사람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서울로 만들고 싶다. 시장이 되어서 남들 못지않은 좋은 시장이 되고 싶다.

## 2조는 이렇게

### 조사목적

현재의 보행환경이 과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마음놓고 걸을 수 있는 것인지 청소년의 눈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걷고싶은 서울 만들기에 대한 인식의 계기 제공

### 이동경로

#### 인사동길

### 조사방법

휠체어를 체험도구로 하여 지하철을 이용하여 종각역까지 이동하여 인사동길을 가보고, 인사동가게를 이용

### 조사도구

#### 휠체어, 카메라



### 조사내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유무, 보도상태

### 조사학생

- 권정원(봉원여중2)
- 김성남(충암고2)
- 김재민(대일고1)
- 오지영(동일여고1)
- 이소영(봉원여중2)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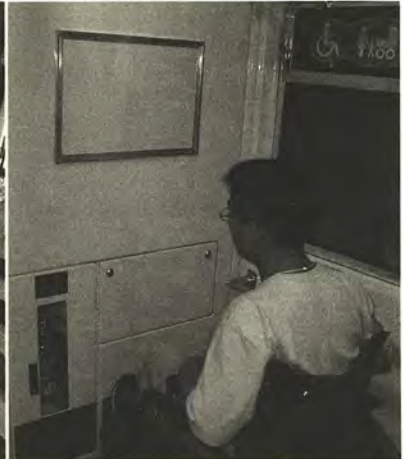
### 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❶ 보도블럭의 턱이 높아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통행하기에 불편하다.



❷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사동 한 가게의 입구에는 경사로가 없이 계단만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는 들어갈 수 없다.



❸ 지하철 안에 장애인의 자리에 지하철 노선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 휠체어에 잠금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지하철이 정지하고 출발할 때 흔들림에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추가장치가 필요하다.

## ② 합정역까지의 보도 상태

- 보도가 건물 쪽으로 올라가있는 경사여서 휠체어가 한 쪽으로 쏠려 자칫 휠체어가 뒤집어 질 수 있다.
- 신호등의 녹색시간이 12초로 미처 다 건너기 전에 빨간불로 바뀌어 차량과의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 1기 2조 체험소감문

이소영(봉원중2)

\* 여기 올때 많이 기대를 했었다. 와서 조가 짜여지고 방도 짜여지고... 우리는 3명이 갔는데 2명만 같은 조여서 서운했다. 첫째 날은 즐겁고 재미있는 게임들을 많이해서 즐거웠다. 둘째날 아침 비가 왔다. 하지만 다행히 비가 그쳐서 좋았다.

우리의 목적지는 인사동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인사동을 둘러보았다. 휠체어를 탄 사람과 미는 사람 모두가 힘들었다. 내가 제일 많이 탔다. 지하철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조원들이 들어왔다. 장애인을 실어 나르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무서웠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너무 싫었다. 휠체어도 너무 불편했구... 정말 장애인이란 사람은 얼마나 불편할까... 아무튼 오늘 참 즐거운 하루가 되었던 것 같다.

권정원(봉원중2)

\* 우리 2조는 휠체어를 타고 인사동 거리를 가는 것이었는데, 맨 처음에 어떤 오빠가 타고 그 다음 계단에서부터 내가 타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따가웠다. 거의 다 힐끔힐끔 쳐다봤다. 정말 기분나빴다. 계단에서 내려오는 것은 좀 힘들었다. 나는 힘들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오빠가 탔는데 지하철에서 휠체어 올라가게 하는 것을 타게 되었다. 보기에는 정말 무서워 보였다. 떨어질까봐... 여하튼 장애인처럼 휠체어를 타고 가보니 사람들이 쳐다보고 시선도 잘 안되어 있고...

진짜 장애인들은 정말 외출하기 싫을 것 같다. 시설이 더 발전되고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고 장애인이 마음편하게 다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체험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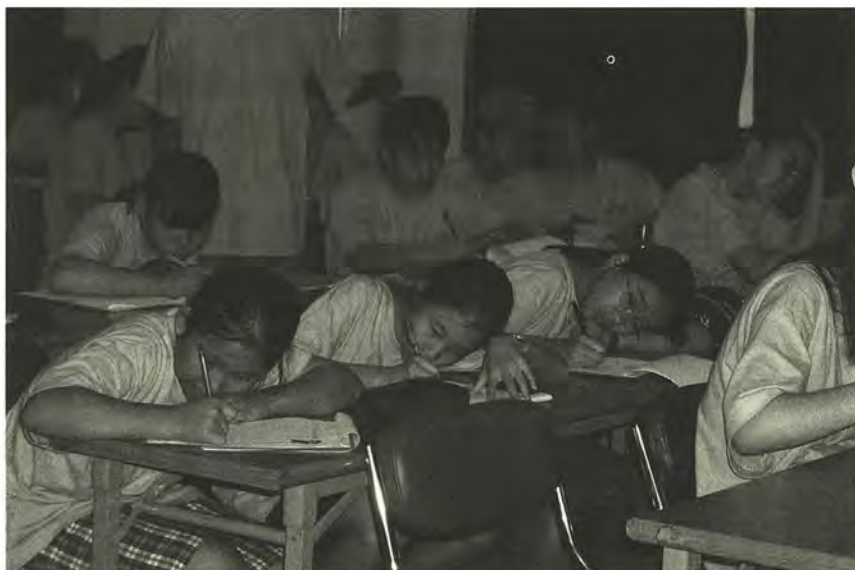
✻ 처음에는 봉사활동 15시간이라는 말에 신청을 하게되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상한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과 가기가 싫어졌는데.. 지금 나의 생각은 무섭고 이상한 곳이 아니라 많은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하는 곳이었다. 방 배정을 받아 아이들과 친해지고 레크레이션은 재미있었다.

스트레스를 풀고, 그 다음날 아침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날이 개여서 우리들은 체험을 나갈 수 있었다.

우리 조는 휠체어를 타고 인사동거리를 다니는 것이었는데 인사동에 도착하기도 전에 힘이 썩~ 빠졌다. 장애인 리프트가 없는 곳은 조 아이들끼리 힘을 합쳐서 휠체어를 들어서 나르고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 도로에 파괴된 곳을 적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는데, 조 애들끼리 더 친해졌고 휠체어도 처음 타봤는데 불편했다.

옛날보다는 장애인 시설이 많이 개선되고 더 생긴 것 같지만, 그러나 정상인이 지하철을 타고 인사동에 가는 것 보다 장애인들이 가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데 아직 미숙한 점을 고쳐야겠다.

청소년 교등학교에서의 추억은 머릿속에 간직할 것 같다.





\*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인식하지 못했던 평상시의 도로를 보고 우리나라의 도로 상태가 안좋다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친절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있다는 것을 느꼈다. 휠체어를 탈때 사람들의 시선이 왜그리도 따갑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도로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름같은 경우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쓰레기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소망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러한 단체활동으로 인해 사람에 관해 많이 알게 되었다.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작년 이어 두 번째로 연속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 매우 힘들었다. 덥고 짜증도 났지만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역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볼 때는 흐뭇하기도 했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갈 때 나는 소리는 너무 커서 마치 “나 장애인이니 쳐다봐주시오!” 하는 것 같았고, 사람들의 시선도 뜨거웠다. 돌아오는 길에 오르막길은 정말 최악이었다. 급경사는 일반인이 올라가기에도 덥고 짜증나는 길이었다. 좀 더 살기좋은 사회가 되고 땅의 높낮이 경사가 없는 땅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 1기 2조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권정원(봉원중2)

\* 내가 서울 시장이라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 것이다. 지하철에서 휠체어 때문에 힘들어 하는 장애인 때문이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올라가는 것을 이용하다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다. 정말 안타깝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

그래서 먼저 지하철에 계단 옆쪽에 경사를 낮게 만들어서 끌고 가면 쉬우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끌고가는 사람이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을 대기시켜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게 하면 된다.

오지영(동일여고1)

\*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휘발유 버스들을 모두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정된 위치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가 손상된 곳은 고칠 것이다. 안양천 등 오염된 강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동차에서 심하게 매연이 나오는 자동차들을 신고받는 부서를 만들 것이다.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도록 내 밑의 직원들과 관리들을 감시하는 부정부패 감시관문을 만들고 지하철에 장애인 시설을 더 많이 설치할 것이다. 침이나 담배꽂초 등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겠다. 시험이 끝나면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 노래방, 콜라텍 밖에 없는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책방, 오락실 등을 만들겠다.

김성남(충암고2)

\* 서울시장이라면 아마 도로 보수공사에 힘쓸 것 같다. 그리고 주차지역의 확보를 우선으로 할 것 같다. 오늘 느낀 점의 하나지만 도로가 보행자위주가 아니라 차들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는 것 같아서이다. 주차공간 확보는, 차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서 외관상 보기에도 안좋아보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걸로 인해 이웃간의 불화,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와 환경에 힘쓸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환경이 오염될수록 더욱 정서도 나빠지고 하는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선진국의 환경 복지 방법을 잘 이용해서 우리만의 방법으로 복지환경을 개발해서 적용했으면 좋겠다.

김재민(대일고1)

✻ 내가 만약 서울 시장이라면, 물론 그럴리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오히려 중산층 수준의 사람들은 배려해 주고 싶다. 사실 어디서나 약자보다 오히려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 매일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마치 어린이와 어른 사이에서 소외당하는 청소년처럼 ...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타고 에어컨 틀고 다니는 사람과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는 사람들, 그들의 사이에는 항상 자리를 양보해 줘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동물의 왕 호랑이, 사자, 귀여운토끼 그에 비해 압압한 고양이, 치사한 하이에나 등 중간에 낀 사람들은 늘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주고 싶은 것이다.

이소영(봉원중2)

1. 교통시설을 편리하게 만들고 싶다
2. 유흥업소를 조금 줄일 것이다.
3. 도로들도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
4.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을 만들 것이다.

내가 지금 위에 쓴 네가지를 서울시장이 된다면 해도 이 일들을 다는 못지킬 것 같다. 그래도 만약 된다면 노력을 해 보아야겠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네가지는 우리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 3조는 이렇게

### 조사목적

보도블럭, 도로횡단시설 등과 같은 보행자를 위한 시설의 편리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견고싶은 거리에 대한 인식의 계기 제공

### · 이동경로

종로1가 - 공안과 앞 - 시청 - 덕수궁

###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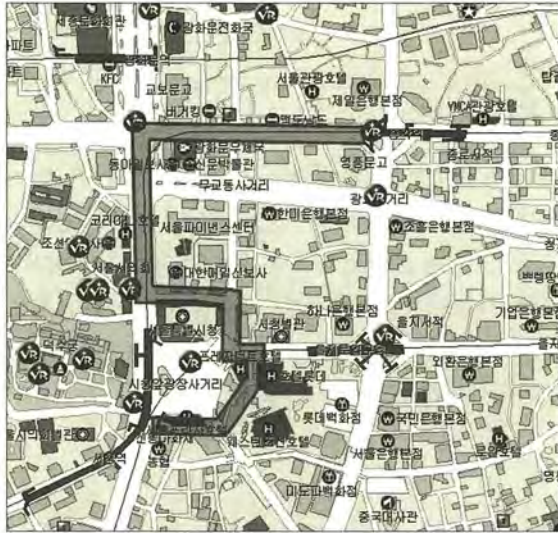
여행용가방을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여 종로1가 까지 이동한 후 목적지까지 횡단시설(지하보도와 횡단보도)을 이용하기

### 조사도구

여행용가방, 카메라

### 조사내용

보도블럭의 관리 상태, 횡단보도 위치



### 조사학생

- 김건아(성산중1)
- 김도희(동일여고2)
- 김동현(대일고1)
- 이찬형(선정고2)
- 전혜리(세화여중1)



## 조사결과

### ① 보도

- 시청 맞은편에 있는 서울센터빌딩 앞에는 보도블럭이 빠져 있고, 평평하지 못하고 걷는데 불편을 주고 있다.
- 광화문우체국 앞길은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빗물이 고여 있어 보행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 시청사 뒤편의 보도는 매우 좁아 보도로만 다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지나가는 차량 사이로 위험하게 다닐 수밖에 없다.



☉ 지하보도를 통과해서 프라자 호텔 앞으로 나오는 보도는 도로와 블라드 몇 개만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 ② 횡단보도



☉ 덕수궁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지상의 횡단보도는 태평로에 단 한 개도 없으며, 오직 지하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 덕수궁을 향한 접근로 뿐 아니라 도심부에는 횡단보도보다 지하보도가 더욱더 발달(?)되어 있다.

## 1기 3조 체험소감문

김건아(성산중1)

\* 아침에 비가와서 정말 안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날씨는 다시 개어서 우리는 여행용 가방을 하나를 끌고 터덜터덜 걸어갔다. 여행용 가방은 휠체어나 목발보다 더 쉬워서 그리고 또 가벼워서 “이정도 썸이야”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하보도를 지날때 가방이 아닌 웬 돌덩이를 들고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애꿎은 팀장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우리는 종로에서 시작해 덕수궁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결코 짧지만은 않은 거리였다. 종로로 가는 버스를 몰라 헤메고 있을때 절대 물어보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할 수 없이 광화문으로 가는 129번을 타고 광화문에 도착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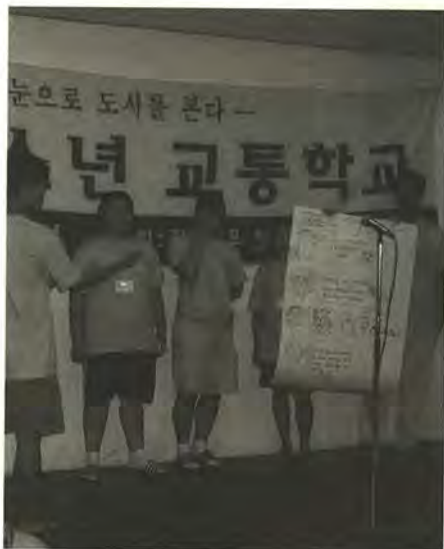
사실 이곳은 보도블럭이 많이 깨져있을 거라 생각했던 우리들의 예상은 너무나 빗나가고 말았다. 사실 우리는 광화문에서 내려서 원래 코스와는 반대로 걸어가고 있었다. 교보문고 앞이나 종로의 보도블럭은 예상외로 너무나 깨끗하고, 또 넓고, 심지어 마련해 놓았다. 광화문 우체국 앞 LG25시 등 몇몇 곳들 많이 깨져있거나 텅 비어 있을 뿐 나머지는 깨끗하고 좋았다. 작년에 광주은행과 영풍문고 사이에 나뻐다는 곳도 이젠 깨끗이 바뀌어져 있었다. 가끔 몰상식한 노점상 사람들이 판을 길게 늘어뜨려놔서 가방을 놓는 데도 불편했고, 걷는데도 불편하였다.

특히 덕수궁 돌담길은 외국인이 많이 와서 도로와 인도를 깨끗이 바꾸어 놓아서 아주 보기 좋았다. 예상외로 길이 잘 닦여있는 모습에 나는 기분이 매우 뿌듯했다.

이런 교통학교로 한국의 보도를 잘 알 수 있어 좋았고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눈에 띄지 않는 곳에도 눈길을 주어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혜리(세화여중1)

\* 여기는 종로의 영풍문고 앞. 우리 3조는 지금 끙끙거리며 열심히 여행용 가방을 옮기고 있다. 덜컹 하는 소리와 동시에 짜증섞인 목소리가 자동으로 흘러나온다. 깊게 파여진 빗물고인 웅덩이에 가방이 빠진것이다. 나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다. 우리는



가방을 다시 끌고 덕수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더운 날씨에 가방 무게 때문에 모두 가방 끄는 것을 피하고 있었지만 조장인 찬형 오빠만이 가고 있었다. 지하도를 건널 때에는 조장 오빠만이 열심히 옮기고 있고, 조사표를 적은 언니는 불편한 자세로 적고 있었다. 대체로 도보블럭에 구멍이 있거나 깨진것들이었다. 깨진곳에 가방이나 발이 빠져 가면서 간신히 덕수궁에 도착했다. 우리는 가방무게에 지친 몸을 이끌며 숙소로 들어왔다.

김도희(동일여고2)

\* 청소년 교통학교라고 해서 청소년 교통학교가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다. 교통학교라면 학교니까 뭔가 배워가야 하는 곳인데 교통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하고 처음에는 생각했다. 나는 교통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무관심 하다고 해야 더 올바른 표현이겠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무관심했던 것 같다.

8월 2일~3일에 걸쳐 진행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워간다. 나의 무관심에 대한 반성을 가장 크게 배운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항상 다니는 길이지만 불편하다고 느껴보지 못했다. 아마 모든 길에서 훼손된 보도블럭, 보도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상들을 봐왔기 때문이다.

새롭게 눈을 뜨고 도로를 바라보니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보였다. 이런 문제점들을 나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점점 문제점들이 고쳐져서 나아지는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다.



### 김동현(대일고1)

\* 곳곳에 위험한 곳들이 많았고 보도블럭이 많이 깨져있었다. 짐을 들고 가는데 지하도 계단이 높고 짐들이 불편하였고, 보도에다 주차를 해놓은 것도 보았다.

### 이찬형(선정고2)

\* 저는 처음에 교통학교라는 것이 장애인체험과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봉사활동의 일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 조별 토론을 하고나니 우리나라 교통현실에 대해 알고자하는 그런 체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하기만 하고 약간 낯설기도 했지만 레크레이션과 조별로 토론하며 많은 애들과 친분도 쌓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2기때도 참가하고 싶습니다.



## 1기 3조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김건아(성산중1)

\* 내가 만약 서울 시장이라면 ... 음 단순하게는 서울을 쾌적하게 만들겠다. 아닌가 ^^;; 구체적으로 하자면 나는 버스에 대해 개선하고 싶다. 버스는 지하철과 더불어 대중교통의 별로 거의 모든 시민이 버스와 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불친절 한 것도 버스이다. 사실 버스의 노선표는 듣성듣성 있거나 숨겨져 있는 정류장이 많다. 또 신촌에서 버스를 기다려 보면 어떤 버스는 1분도 안되서 오는게 있는 반면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가 있다. 또 특히 버스가 많이 오는 곳이라면 정류장 앞에 2대쯤 서있으면, 4번째 버스는 그 버스를 지나 기다리는 사람을 무시한 채 가버리는 버스도 있다. 그럼 기다렸던 승객은 모두 도로로 달려야 하고, 그건 위험할뿐더러 버스기사는 매우 싫어하는 얼굴로 열어주거나 안 열어 주는 버스도 있다. 또 버스는 지나치게 급하게, 난폭운전을 많이해 급정지를 많이 한다. 그럼 승객은 늘 불안하고 서있는 사람은 넘어지기도 해 불만이 터해진다. 또 외국인은 버스노선도를 알아 볼 수도 없고, 장애인이 버스를 타는 것은 꿈도 못꿈다.

외국에는 장애인을 위한 버스도 많은데 ... 우리는 일단 버스기사의 친절도가 떨어진 다. 그래서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버스차체를 좀더 낮게 바꾸고 버스기사들은 다시 친절 교육을 시킬 것이다. 또 노선표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를 적어놓은 것도 준비할 것이다.

두 다리 달린 사람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아닌, 장애인과 목발을 짚는 사람, 외국인 모두가 같이 이용하고 정말로 친절하게 타고싶은 버스로 만드는게 나의 바램이다.

이찬형(선정고2)

\* 월드컵 때문에 지금 서울의 거리는 어느정도 고쳐치고 깨끗해지며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오늘 교통 체험을 하면서 평소에 모르고 지냈던 서울시내의 교통의 불편한 점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길가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해 있어서 여행가방을 끌고다니기가 매우 불편했고, 중간중간 보도가 깨져 발이

빠지기도 하였다. 물론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점을 먼저 고칠 것이다. 또 길이 많이 붕괴되고 배수가 되지 않아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점들을 서울시장이 되면 보완할 것이고 이점들 만이라도 보완이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서울의 도시는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고 깨끗한 곳으로 바뀔 것이다.

김동현(대일고)

\* 주차시설을 편하게 만들어서 보도에 주차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래야만 보도블럭도 깨지지 않고 마음놓고 친구들과하고 옆으로 나란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지금 보도블럭이 깨지거나 없는 곳은 새로 깔겠다. 보도만큼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전혜리(세화여중)

\* 깨진 보도부터 제대로 수리를 할 것이다. 보도에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쓰레기 통은 지금보다 더 많이 설치하고 싶다. 그 사이사이에는 나무를 심어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오늘은 뜨거운 햇빛을 도저히 피할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었다.

## 4조는 이렇게

### 조사목적

도심지가 아닌 주거생활권에서의 학생들의 통학로의 보행환경을 조사하여 주거지에서 현재의 여건에서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의 전환 모색

### · 이동경로

합정역로타리- 망원우체국사거리 - 알파문구 - 동교초등학교

### 조사방법

목발을 짚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보도의 상태를 조사

### 조사도구

목발, 카메라

### 조사내용

보도블럭의 폭원, 보도의 관리 상태, 보도 주변의 환경 등



### · 조사학생

김재영(명지중1)

김형운(신목중1)

서혜영(동명여고2)

이수연(세화여중2)

최원용(신목중2)



## 조사결과

### ① 교육관 - 합정로타리 구간

- 건물로 진입하는 차량출입구에 접한 보도는 경사가 심해 보도쪽으로 쓸리는 현상으로 휠체어나 유모차의 경우 뒤집어 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보도블럭은 깨진 곳 없이 매우 좋은 상태였으나, 쓰레기와 가게들에서 내놓은 물건들로 인하여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다.



### ② 합정로타리 - 망원우체국 사거리

- 보도폭이 4m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위에 오토바이, 자전거, 쓰레기, 가구 등으로 인하여 가장 좁은 경우 0.5m 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





❶ 성산초등학교 앞 통학로는 가드레일로 구분되어져 있으나, 보도가 시작되는 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가드레일이 없는 곳의 보도에는 전봇대가 세워져 있어 사람은 전봇대와 주차된 차를 피해 차로로 다닐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❷ 성산초등학교 앞 보도는 가드레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으나, 보도의 폭원이 1m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좁은 공간에 전봇대가 세워져 있어 실제 이용 가능 폭원은 70cm밖에 되지 않는다.

### ③ 망원우체국사거리 - 알파문구



❶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아스팔트 덧칠포장으로 인하여 지워져 있어 운전자의 시인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 ④ 알파문구 - 동교초등학교

· 분식점과 슈퍼에서 음식조리대와 게임기등을 보도에 내놓아서 보행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 ⑤ 전구간

· 어느 일정부분의 구간 뿐 아니라 구간 전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차량, 쓰레기, 가게 물건들이 보도에 내놓아져 보도가 실제 설치되어 있는 공간만큼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1기 4조 체험소감문

김형윤(신목중1)

✻ 아침 일찍 몰래 깨었을 때는 햇빛이 반짝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으~! 우리 아무것도 안하고 헤어지나? 선생님이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휴가도 못 가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햇빛이 갑자기 났다.

드디어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 와!! 언니, 오빠와 선생님과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주차하고 있던 아저씨가 너희 무슨 사진 찍냐면서 울그락 불그락 할 때가 가장 인상 깊었다. 보도에 주차해 놓은 차 때문에 걷기 불편해서 그 차를 찍고 있었는데 우리가 불법주차 사진을 찍는 아이들로 보였나보다. 그리고 목발을 하던 오빠가 전에 목발하던 언니보다도 힘들어 했다. 아마 원래 몸이 약한가보다.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외톨이가 되긴 했지만 좋은 언니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내년 에 한번 더 오기를 기대하면서 나의 글을 마친다.

서혜영(동명여고2)

✻ 작년에 비해 편안히 체험활동을 마쳤다. 우리가 체험한 곳은 <합정역 로타리 - 망원동 방향 - 망원우체국사거리 - 알파문구 - 동교초등>이었다. 이 곳이 상암경기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큰길가의 도로는 정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깨진 보도 블록 찾기는 숨은 그림 찾기였고, 보도 변에 나무와 꽃으로 조경을 해놓아서 보기 좋았다. 그러나 휴지통이 적고, 앉아 쉴 공간이 없어 버스 정류장에서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잘 정돈된 거리는 좋았지만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또, 우리가 지나간 코스에서 큰길 이 아닌 주된 학교 등·하교 길도 있었는데, 큰 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여기저기 파손된 보도블록들이 걷는데 방해가 되었고, 인도의 경사도 가파라서 걷기가 힘들었다. 큰 길과 달리 어두침침한 분위기여서 걷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았다. 모든 코스를 지나면서 내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보도에서 보행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었다. 상점

가에서 내놓은 물품들이 보도의 반을 차지하니 심각함을 세삼느꼈다.

지난번 체험과 달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실행한 것이었고, 작년보다 많이 나아지니 도로 환경이었지만 아직도 사람을 위한 거리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수연(세화여중2)

✳ 오늘 8시 30분부터 현장체험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내린 관계로 비가 멈춘 뒤부터 현장체험을 했다.

우리 조는 목발을 잡고 합정역 로타리 - 망원동 방향 - 망원우체국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알파 문구로 가서 우회전해서 동교초등학교를 왕복하는 것이었다.

나는 사진기를 가지고 문제지점을 찍었다. 우리들은 목발을 20분씩 번갈아가며 했다. (나와 형윤이만 빼고) 외진 곳에서는 불법주차, 공사 뒤처리 등이 절 정리지 않았다. 횡단보도도 제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높았다. 또 공사중인 곳은 안전 설치도 되어있지 않았고, 공사 뒤처리도 안 되어 있어서 이슬이슬했다. 그리고 인도에는 목발하고 다니기 어려운 정도로 기울기가 심하고 신호등 시간은 횡단보도의 거리에 비해 짧은 곳도 있었다. 그러나 좋은 점도 있었다. 전에는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던 시각 장애인을 위한 버튼은 우리가 다닌 곳은 어딜 가든 잘 되어 있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개선되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즐겼으면 좋겠다.

최원용(신목중2)

✳ 처음에 친구에게 이 프로그램을 하자고 했을 때에는 순전히 봉사활동 시간을 준다고 해서 오게 되었다. 또 여기에 와서 프로그램 진행표를 보았을 때는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

이 곳의 첫 시간은 레크레이션으로 애들과 얼굴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함께 레크레이션을 해서인지 다음날 체험할 내용을 의논할 때는 낯설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여기의 밥은 꿀맛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직접 체험을 해봤다.

목발을 처음 집었을 때에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100m, 200m, 300m씩 늘어갈 때마다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목도 탔다. 다른사람과 바꾸고 싶은 마



음이 간절했지만 '겨우 이거만 하고 끝을 낸다'고 하니 이십고 그 다음 차례인 친구가 '별써 끝내냐, '힘이 딸린다' 어쩐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하기에 오기로 버텼다.

사거리에 이르자 난 다음 친구에게 넘겨줬다. 와! 내가 가는 길은 어찌나 힘들던지 거의 모든 약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쓰레기터미와 보도 위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 계다가 내리막길과 오르막 길은 죽을 맛이였다.

평소엔 눈에 안 띄던 여러 문제점들이 세삼 눈에 들어오고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 각인되었던 체험이었다는 것에 의의를 가졌다. 다음번에도 꼭 참가해서 그 때는 봉사활동이 아닌, 진심으로 우리 서울의 교통 문제점을 관찰하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김재영(명지중1)

\* 나는 이번 교통학교에서 거리의 문제점과 노점상들이 길을 막고 있어 다니기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과 학교 등교길에 공사장 차들이 드나들고, 보도 폭이 너무 좁아 아이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다. 진짜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으면 진짜로 힘들 것이다. 레크레이션도 재미있었고 길 찾는 것도 재미있었다.



## 1기 4조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김형윤(신목중1)

\* 내가 서울 시장이 된다면 거리를 우선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큰 도로가 있는 곳은 보도도 깨끗하고 보도도 넓은데, 좁은 골목길에 있는 상점들 앞에는 상점의 물건들 예를 들어 수박, 삼푸, 의자 등이 보도에 꺼내져 있어 보도에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였고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 도심의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나무와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 선생님과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매연을 맡으면서 무척 괴로웠기 때문이다.

또 그 나무를 심는 것을 더불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의자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름에 걷다보면 엄청 힘들고 땀이 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서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서혜영(동명여고2)

\*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우선 인도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 건물과 인도를 완전히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거리를 띄어놓고 보도를 건설해서 상점 앞에 물건을 내놓아도 보도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골목길이라 해도 파손된 거리가 없도록 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밝고 깨끗하게 꾸며놓고 조금이라도 좁아진 골목길에 들어가면 어두운 분위기가 되는 곳이 아니라 서울 시내 어디에서도 밝은 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강압적인 방법(?)을 실행하더라도 10부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서 자동차의 운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거리의 조경도 예쁘게... 편안하게 깨끗이 꾸며서 걸으면 걸을수록 기분 좋은 그런 거리를 만들고 싶다..^^.. 더 나은 서울 거리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서울 시장이 될 것이다.

더 바라다보면 능력 밖의 일이지도 모르나 능력과 환경이 된다면 일반인과 장애인들 모두에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도시로 이끌고 싶다.

\* 오늘 체험학습을 가보니 쓰레기가 많았고, 도로가 좁았으며 여러 차들이 보도에 불법 주차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내가 시장이라면, 앞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먼저 쓰레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각 가정에 벽장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쓰레기를 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놓을수록 돈을 주는 것이다. 뭐 돈이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은 안한다. 모두 국민들의 세금인데 뭐.

다음엔 도로 문제다. 도로가 넓으면 '이렇게 넓은데 나 정도야 불법 주차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생겨나기 때문에 지금의 인도를 갈아 치우고 인도의 폭을 넓히되, 차도와 인도 사이에 투명한 큰 장벽을 세우고 횡단보도 쪽에만 문을 달으면 완벽하다.

아! 택시 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에도 문을 달아야겠군! 이 장벽은 마지막 문제인 불법 주차도 해결해준다. 뭐 지금 서울의 도로는 굉장히 시설이 좋아서 위의 3가지 문제밖에 없다. 이걸 지금 서울 시장이 꼭 해야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제가 서울시장이라면 인도의 폭을 조금이라도 넓히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장애인시설을 늘리고 보도에서 상점의 물건을 진열해 놓는 것을 단속하고 횡단보도의 녹색시간을 알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더욱더 많이 만들고 차 없는 날 행사도 해볼 것이다. 고장이 난 신호등도 고치고 부서진 블록도 고칠 것이다. 중앙선 등 차선들도 다시 그릴 것이다. 인도도 차도처럼 1년마다 1번씩 다시 깔았으면 한다. 환경미화원들도 많이 고용을 해서 깨끗한 서울로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만들도록 해야 한다.

## 5조는 이렇게

### 조사목적

도심지가 아닌 주거생활권의 보행환경을 조사하여 보행자를 위한 도로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

### · 이동경로

교육관 - 한국전기공업  
소 - 흥익동물병원 - 와  
우산길 - 흥익대 - 신촌  
역

### 조사방법

목발을 짚고 목적지까  
지 이동하면서 보도의 상  
태를 조사



### 조사도구

목발, 카메라

### 조사내용

보도의 관리 상태, 보도 주변의 환경 등

### 조사학생

배춘묵(아현중2)  
신선한(봉원여중2)  
이샘(동명여고2)  
조우경(상도중1)  
조은정(동일여고)



## 조사결과

### ① 교육관 - 서울화력발전처

- 보도블럭은 매우 깨끗한 상태였으나, 보도상에 버려진 쓰레기로 보행시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다.



- 보도블럭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로 인하여 보행자가 차를 피해 다녀야 하며, 목발이나 휠체어 또는 짐을 가지고 걸어갈 때는 보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 ② 서울화력발전처 - 홍익동물병원

- 보도의 폭이 1m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개구리식 주차를 해놓고 있어서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섞여서 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 ③ 흥익동물병원 - bar home

- 보도블럭을 설치한지 얼마되지 않은 곳으로 보이지만 바닥에 밀착되어 있지 않아 보행 중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 ④ 기타사항

- 전체 조사구간 중 2개의 공사장 옆을 지나갔으나, 보행자를 위한 특별한 안전조치를 갖추고 있는 곳은 없었으며, 공사장옆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 1기 5조 체험소감문

이샘(동명여고2)

\* 처음 올 때는 기분이 석연치 않았다. 이 행사를 하는 곳이 전에 살던 곳이어서 기억에 좋지 않아서 잊고 싶었다. 그래서인지 레크레이션하기 전까지는 그냥 마냥 '멍-' 했다. 근데 조가 정해지고 좀 익숙해지고나니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

다음날 해가 뜨려는데 비가 내렸다. 체험을 못하게 된 것이다. '비가 우리를 망치는 군' 하는 맘에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그런데 비가 어느 새인가 그쳐있어서 다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코스는 약간 멀었다. 내가 예전에 살아 봐서 이 동네를 알지만 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은 곳이었다.

월드컵이 있어서 도로가 많이 정비돼 있었지만 쓰레기가 너무도 많았고 보도위에의 차는 사람이 지나가지도 못하게 대 놓았다. 공사장아래 아슬아슬하게 달린 안전망, 너무도 높은 턱은 목발 짙은 우리에게 무리였다. 그냥 걸어가도 걸려 넘어질 듯한 보도블록은 깨져서 일부는 어딘가로 날아갔고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길은 자동차의 경적소리에 눈치보고 다녔다.

아슬아슬하게 돌아온 숙소에서는 정말 피로감에 누워있게만 되었다. 이렇게 잠시만으로도 힘든데 매일 이같이 생활하는 이는 얼마나 힘들지 생각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이런 곳 하나 없으면 좋겠다.

신선한(봉원중2)

\* 지금 나는 너무 힘들다... 처음에는 집에서 올 때는 참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한밤 자고 나니 힘들었다. 아침 일찍 비가 와서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을 했는데, 선생님이 하느님께 다같이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자고 하셨다. 그이야기가 끝나자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그쳐버렸다. 그래서 우린 무사히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목발을 짚고 걸을 때는 너무 힘들었다. 겨드랑이도 아프고... 그래도 다음에 올 수 있다면 또 와야겠다.

\* 처음 여기 와서 교통에 대해 강의를 듣고는 조금 관심이 있었지만 곧 관심은 별 집에 어떻게 하면 빨리 갈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나누어준 자료를 읽어보고는 우리나라의 교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항상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아직도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많이 없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직접 체험을 했는데, 우리 조는 목발체험을 하였다. 길이 포장이가 잘 되어서 좋았는데 가끔 차들과 쓰레기도 인해 지나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차도로 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느꼈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자주성을 많이 배운 계기가 되었다.

#### 배춘묵(아현중2)

\* 아~집에 가면서 햄버거 사 먹어야지... 벌써 1박2일의 청소년 교통학교가 끝나간다. 여기에 와서 우리나라 교통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우선 우리나라는 교통수단에서만 보더라도 보통길음으로 걷는다면 약 20~30분 거리이지만 목발을 짚고 걸어가게 되면 1시간 20분정도나 걸렸다.

나는 약 20분 정도 목발을 사용하여 걸었다. 내가 목발을 사용하며 걸은 길이 험한 건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인도까지 침범한 차들도 많았고, 아예 길을 막아버린 차들도 많았고 길가 전신주 주위에는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런 거리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우리의 도시 환경과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에 대한 시설들을 많이 배려하고 보도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조우경(상도중1)

\* 해수욕장으로 놀러가는 것을 포기하고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해수욕장 가기를 포기한 것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다.

둘째 날 현장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날씨가 심상치가 않았다. 비가 왔다. 우산이 없어서 집에 갈 일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했다. 왜냐하면 내가 목발을 짚고 가기 때문이다. 물론 3명이 나눠져 가긴 했지만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것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이다. 이런 저런 생각 끝에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다. 걱정을 심하게 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목발을 짚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도 않고 공중에 뜨는 기분이 어떤 때는 재미있기도 했다. 내리막길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보도가 울퉁불퉁하거나 보도블럭이 깨지지 않았으면 훨씬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또, 쓰레기도 없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았다.

나는 나중에 발을 다쳐도 능숙하게 걸을 자신이 있다!!! 우하하하하~!!!!



## 1기 5조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이샘(동명여고2)

\* 월드컵을 치르면서 그간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인이나 장애인에게 우리 서울은 아직도 힘겹기만 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생겨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다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런 우리 도시 교통 환경이 선진대열에 세계꿈 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개인차 보유율이 높은 이유는 대중교통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못하니 개인차 소지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우선 버스는 모두 다 알아치워야겠죠. 정차를 가까이 하며 비스듬히 기울여 휠체어도 오를 수 있고 연세가 많은 노인들, 어린아이도 타고 내리기 쉽게 할 것입니다.

버스 정류소도 모든 구조를 천호동에 있는 정류소 같이 도로 중앙선에 정류장을 설치해서 보행자와 버스 승객이용자의 불편을 덜게 해줄 것입니다. 지하철도 현 개통된 지하철에 계단수를 좀 줄이고, 비스듬한 길을 만들어 몸이 불편한 시민에게 편리하게 할 것이고, 휠체어 전용 승강기는 물론 현재되어있는 곳에서는 두 달에 한번 점검하게 할 것입니다.

보도위의 주차는 법으로 규정하여서 벌금을 세게 물도록 하라로 할 것이고 또한 불법 주차 단속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상상을 못한 정말 이상적인 도시 서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신선한(봉원중2)

\* 첫 번째, 주차 시설을 많이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주차를 아무 곳이나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로가 좁아져 차가 잘못 다니게 되고, 인도의 좁아진다. 도로가 좁아지면 차가 다닐 수 있는 간격이 별로 없고, 사고가 많이 날 것이다. 또 인도가 좁아서, 사람들의 어깨가 부딪히면, 사과는 하지 않고 싸우기가 쉽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 시설이 만들 것이다.

두 번째, 깨끗한 공기, 매연이 없는 도시를 만들 것이다. 깨끗한 공기를 만들려면 나무

를 많이 심어야 한다. 그리고 매연이 없는 도시를 만들려면, 자동차가 별로 없어야 한다. 나무가 많으면 공기도 맑아지고 매연도 조금 줄을 것이다.

세 번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 것이다. 지금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다고 해도, 별로 좋지 않고 사고가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조은정(동일여고1)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음... 옷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자가 서울시장 이 되었다는 것에 많은 박수가 쏟아지지 않을까?

서울시장이 되자마자 나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들을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잘 이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찬성을 한다면 자동차 2부제도 실시할 것이다. 멋진 대한민국속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특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차 없는 거리”를 전국 방방곡곡에 만들어 국민들에게 차가 없어도 살 수 있고 때로는 차 없이 다니는 것도 좋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이 보내준 자료들만을 보지 않고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보며 그 곳에 가서 몸소 체험하고 그 곳을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시장은 몸으로 뛰며 자신이 국민의 앞장이 되어 어떤 것이 불편한지 직접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배춘목(아현중2)

\* 오늘 합정역에서 신촌까지 목발을 이용하여 걸어서 다녀왔다. 신촌까지 가면서 잠깐 목발을 이용했는데 잠깐이었지만 목발을 사용하는데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깨진 보도블럭의 틈이나 횡단보도의 경사면 등이 목발을 옮기는데 장애가 되었다. 만약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새로 만들 것이다 (자전거도로 처럼)

그리고 서울시의 버스 수를 늘리고 버스간의 시간차를 줄일 것이다. 버스표지판에 외국어도 따로 표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에 사람 성인키의 맞게 거리의 위치표시와 이정표를 달아 외국인들이 불편 하지 않게 서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인도에 쓰레기가 없도록 쓰레기통을 100m간격으로 배치하여 서울을 살기 좋은 서울이 되도록 할 것이다.

조우경(상도중1)

\*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청결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벌금을 내도록 하게하고, 쓰레기통을 되도록 많이 설치해서 길을 걸어갈 때, 즐거운 기분으로 다닐 수 있게 하겠다. 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만들고 편리하게 고쳐서 장애인들이 훨씬 나은 조건으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성심껏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길을 걷는 것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에 대해 지금보다 좀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 불법 주차의 문제가 심각한 곳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물론이고 보통사람들도 다니기 어려운 곳도 있다. 이런 차들은 다 견인조치를 취하고 많은 벌금을 내게 하겠다.

## 6조는 이렇게

### 조사목적

현재 서울시의 외국인인을 위한 도로 및 관광지 안내체계 상태를 점검

### · 이동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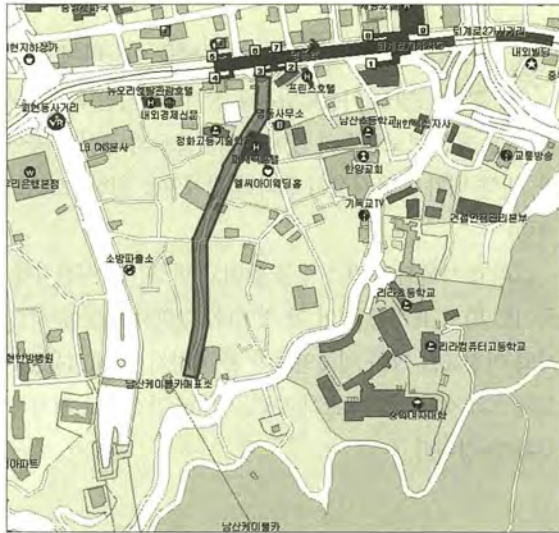
합정역 - 명동역 - 남  
산케이블카 탑승장

### 조사방법

외국인이 관광안내지도  
와 도로안내표지만을 보  
고 남산케이블카 탑승장  
까지 찾아가기

### 조사도구

서울시 외국인용 관광  
안내지도, 목발



### 조사내용

안내지도와 안내표지판의 정확성과 설치여부, 주 접근로의 보행환경 등

### · 조사학생

- 김정연(대림중1)
- 신상훈(성재중2)
- 이설희(윤중중2)
- 장윤희(동일여고2)
- 최하늘(대림중1)



· 조사결과

① 안내체계



⊕ 명동 지하철역에서 남산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 관광안내지도와 지하철 역 내에 설치된 안내도를 비교하여 찾아갔다.



⊕ 명동역 보도에 설치된 서울시 중심지역 안내도에도 케이블카 탑승장에 대한 안내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② 보도주변환경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으며,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 있어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 1기 6조 체험소감문

장윤희(동일여고2)

\* 여기 오기전에 재미있을 것 같은 기대감과 몸상태가 안 좋은 관계로 조금의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서로 나이도 같지 않고, 학교도, 동네도 틀린 친구들이 서로 모여 교통에 관해 의논하고 체험한 것이 너무 재미있었다. 어려운 시사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교통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내가 느낀 불편한 점이 나만 느낀 불편한 점이 아니기에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점들도 발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통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제일 재미있었던 활동은 교통학교의 주목적인 체험활동을 위한 조별토론과 현장체험이다.

우리조는 6조였는데 David이라는 외국인과 함께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케이블카까지 찾아가는 것이었다. 명동역까지는 무사히 도착했다. 남산케이블카를 찾기 위해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노선표를 보고 표지판을 보았지만 남산케이블카의 위치를 알려주는 곳은 없었다. 우리는 지도를 보고 열심히 찾아 기업은행 가기전 골목길로 들어갔다. 남산케이블카라는 곳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도 안내 표지판도 없고 길거리에는 쓰레기투성으로 악취가 나서 인상을 쓰게 되었다. 거기다가 골목길이라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않아 길이 혼잡했고 사람들은 차를 마구 세워두고 사람들은 차를 피해 다녀야만 했다. 그리고 보도의 블록이 깨지거나 통째로 빠져 보도위에 굴러 다니기도 하였다. 발이 걸려 넘어질 것 같아 위험해 보였다.

남산케이블카까지 갔다오면서 느낀 점도 많았고, 배운점도 많이 있었다. 우선 이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했으면 한다. 교통학교를 입학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가는 것 같아 좋았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고 싶다.

신상훈(성재중2)

\* 평소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교통문제점들이 새삼 눈에 들어오는 체험이었다. 경사진 곳에는 휠체어가 그냥 옆으로 쓰러질 것 같았고 곳곳의 쓰레기 냄새가 진

등을 했다. 휠체어 뿐만 아니라 목발을 할 때도 경사진 곳은 어깨의 균형을 맞추기 힘들어 자꾸만 미끄러졌다. 난 직접 목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출발하기전 목발을 한 친구의 표정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아주 특별한 체험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평범한 체험도 아닌 그런 체험... 스스로 교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고치면 더 편리할까?' 등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는 내가 먼저 교통안전을 실천하고 장애인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만이라도'를 실천하는 길이 우리나라의 교통문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그것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최하늘(대림중1)

✿ 솔직히 지금은 갔다오지 별로 안되서 힘들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처음엔 재미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 처음엔 재미있었는데 점점 오후가 되어가면서 더워지고 오르막길도 많아지고...

목발을 짚고 가는 친구를 옆에서 지켜보니 목발이 사람 혼자 지나갈 때보다 옆으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목발끝에는 쓰레기가 걸리고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기우뚱거리고는 하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저분하고 불편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참 놀라웠다.

#### 이설희(윤중중2)

✿ 처음에는 교통에 대해서 특별히 뭘 알아야 하나하고 생각했는데 서울의 교통문제점과 교통의 편리성 등을 알고 나니까 교통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것을 알아두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걸어다니니까 정말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정말 힘들었다. 다리 아픈 것, 더운 것, 배고픈 것을 떠나서 주위에 쓰레기도 많고, 보도에는 불법주차를 하고, 외국인을 위한 길 안내 표지판도 없고, 신호를 어기는 차 등등...

체험을 할 때도 강의를 들었던 것처럼 버스를 탔는데 우리가 직접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다. 갑자기 우리나라 교통혼잡문제 등이 선진국처럼 될 수는 없지만 서울시등에서 조금만 자기 일처럼 더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들도 더욱더 협조하면 머지않아 선진국처럼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김정연(대림중1)

\* 나는 현장체험을 할 때 목발을 짚고 갔다. 그런데 그냥 걸어 갈때는 몰랐는데 목발을 짚고 가니까 약간만 경사가 있어도 힘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걷던 거리를 이렇게 다시보니깐 잘못된 점이 정말 많다고 느꼈다.

거리에 쓰레기들도 많았고 길을 막은 차들도 있었다. 또 남산케이블 카 탑승장까지 표지판도 없었다. 그리고 버스는 정류장에 서지 않아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달려가 타야했다. 외국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창피했다.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를 없애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



## 1기 6조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신상훈(성재중2)

\* 교통규칙을 엄중히 따지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중벌로 다스릴 것이다. 좀 잔혹하기는 하지만 쓰레기의 악취, 다 깨져가는 블록들을 바라보며 '이대로 그냥 두면 안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로의 문제가 심각했다.(쓰레기는 아무곳에나 버리고, 교통의 신호를 잘 지키지 않으며, 차에서 나오는 매연, 소음 등등...)

난 먼저 도로의 경사진 곳을 반듯하게 만들어 휠체어가 힘들이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따로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것을 곳곳에 설치하여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신호등이 잘 작동하도록 하고, 빨간 불과 파란 불에 화살표를 설치하여 횡단보도를 건널 때 더욱더 편리하게 하겠다. 좌측통행을 하도록 계단을 반으로 나누어 선을 그어서 올라가고 내려오도록 하겠다. 차, 버스마다 휘발유를 쓰지않고 천연가스를 쓰게 하여 매연, 소음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장윤희(동일여고2)

\*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비싼 돈을 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없애고 악취가 아닌 향기를 풍기는 거리를 만들겠다.

나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학교를 가면서 쓰레기통이 아닌데도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는 쓰레기봉투가 찢어져 쓰레기 내용물이 보도위에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다. 거기다가 쓰레기통이 아니라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도 쓰레기를 가지고 가지 않아 쌓이고 쌓인 쓰레기가 썩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길을 걷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깨끗한 거리, 걷고 싶은 거리는 향기가 나는 거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버스를 더 늘리고 승용차를 줄여서 버스가 빨리빨리 오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혼잡한 교통을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 편리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 최하늘(대림중)

\*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우선 나는 무엇보다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싶다. 법을 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쓰레기 한 개 버리면 벌금을 굉장히 많이 낸다거나 목격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상금을 준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 김정연(대림중)

\* 내가 서울 시장이라면 거리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보도블럭을 깨끗하고 편편하게 깔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보도블럭이 부서지지 않도록 3개월에 한번은 거리를 검사해서 보도블럭이 부서진 곳은 다시 정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신호등이 고장난 곳이 없도록 정기점검할 것이다.

## 이설희(윤중중2)

\*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보도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거리가 불법주차한 차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때는 불편하다. 또 교통수단에는 외국인,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만들 것이다.

## 7조는 이렇게

### 조사목적

대규모 쇼핑센터가 밀집해 있는 동대문운동장역 주변의 보행환경을 조사하여 보행자를 위한 도로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

### · 이동경로

동대문운동장역 - 밀리  
오레 - 두타 - 프레야 타  
운

### 조사방법

여행용가방을 가지고  
쇼핑센터 인근의 보도의  
상태를 점검

### 조사도구

여행용가방, 카메라



### 조사내용

보도의 관리 상태, 보도 주변의 환경 등

### 조사학생

김은영(동일여고)  
김홍배(대일고)  
서현진(진명여고2)  
임지연(상도중1)  
정승아(진명여고2)



## 조사결과

### ① 평화시장 상가 보도

- 보도위에 물건을 쌓아놓아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줄어든 것 뿐 아니라 가로수보 호대가 보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실제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태이다.



### ② 동대문 쇼핑타운 주변 보도



- ❶ 프레야 타운 옆에 횡단보도는 놓여있으나 보도 턱 낮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 ❷ 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설치해 놓았으나, 재질이 스틸로 되어 있어 눈비가 올 경우 미끄러워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❶ 두타 앞 광장에는 전선이 늘어져 있어 보행자가 밟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❷ 아스팔트 포장을 계속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여 배수구와 턱이 생겨 보행자의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❸ 동대문운동장역에서 두타까지 연결된 보도가 움푹 패어 비가 온 후 배수가 되지 않아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다.

정승아(진명여고2)

\* 예상하지 못한 비도 오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동대문운동장으로 출발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처음에 이 일을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냥 가방을 끌고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행가방을 가지고 다니기에는 길이 너무도 좁았고, 사실 보도가 아닌데도 이미 사람들은 보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쓰레기와 상점들의 물건이 마구잡이로 길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건물로 들어가는 차를 위해 사람이 걷는데 불편한 정도의 경사를 만들어 놓은 곳에서는 가방을 끌고 지나가기도 하였다. 그런 곳을 다닐 때는 '유모차가 이 곳을 지나갔다면 뒤집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도 이런 아주 사소한 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 중 많은 것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늦게라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뜻 깊은 일이었다. 이번의 일들은 결코 생각했던 것만큼 만만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맺은 결실을 따져보면 결코 힘든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이 일을 체험해보지 못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한번쯤 꼭 해보기를 권해보고 싶다.

서현진(진명여고2)

\* 청소년 교통학교의 과정을 마치고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과 방에 모여 소감문을 쓰고 있는 지금 나는 너무 뿌듯하다. 모든 친구들이 열중해서 무엇인가를 적고 있는 것을 보니 모두 나와 같은 심정인가보다. 처음에 교통학교에 왔을 때가 기억난다. 꼭 1년전에 와서 했었는데, 그때에 우리나라 교통현실을 알고,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갔었는데, 두 번째로 와서 교통학교의 과정을 겪는 것은 물론 같은 일정이었지만 또 다른 깨달음을 남기는 것 같다.

친구들과 여행가방을 들고 동대문까지 가면서 나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통현실이 안타까웠다. 1년전에 왔을 때보다는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어실픈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길가의 보도블럭을 좀더 편하도록 올라가게 하기 위해 경사를 만들어 놓기는 하였지만 거의 땀방식이었고, 막상 있어야 할 신호등 앞에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우리 조원들의 표정을 일그러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하철 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 같은 것은 1년전보다는 개선이 된 것 같아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청소년 교통학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매일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통문제들을 다시 깨닫게 하는 점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다니며 흘린 땀 한방울 한방울이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교통학교를 마치며 내가 바라는 점이 한가지 있다면 우리의 이런 땀방울들이 서울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로인해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임지연(상도중1)

\* 처음에는 비가 오는 관계로 체험이 취소될 뻔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날이 개어서 계획대로 우리 조는 지하철을 타고 밀리오레로 갔다. 밀리오레까지 가는 길은 선생님도 알려주지 않고 우리들이 알아서 안내판을 찾아서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무거운 가방을 언니와 오빠들이 주로 들고 지하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였다. 밀리오레로 나가는 출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하철역에서 나와 밀리오레 앞에 까지 가는 보도에는 물웅덩이가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서 걸어야하였다. 그리고 밀리오레 주변의 있는 보도들에는 상점들마다 물건이 쌓여 있어 통행하는데 불편했다. 하여튼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이었다.

김홍배(대일고1)

\*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좋은 조를 만나서 재미있었다. 현장체험할 때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녀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런 것들을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불편했던 것은 계단이었다. 왜 지상에서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은 그렇게도 없는지 모르겠다. 여행용 가방에 짐이 많은 사람이나 노약자나 어린이는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움푹패인 보도블럭은

그냥 지나가기도 힘든데, 아침에 온 비가 빠지지않고 그대로 고여있어서 우리는 차도로 내려서 가야했다. 물도 빠지지 않는 보도, 횡단보도보다 지하보도가 훨씬 더 많은 곳이 서울인 것 같다.

김은영(동일여고2)

\* 실생활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지나쳤던 것을 이제와서 자세히 보고 관찰한 결과 많은 불편함과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의 도로 주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곳에서 나누어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기도 했으며 좀 창피한 것도 있었지만 도로 주변의 심각성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빨리 고치고 개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개인의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서로 사용하고 공유하는 만큼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한다면(예를 들면 많은 상점들은 보도를 너무 차지하지 않도록) 이러한 불편한 점들과 등등의 것들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으며, 이번 체험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았고 휴가 못지 않은 재미도 느꼈다.



## 1기 7조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서현진(진명여고2)

✱ '보행자를 위한 교통' 내가 서울 시장이라면 힘쓰고 싶은 면이 이말 한마디에 모두 압축되어 있다. 그럼 '보행자를 위한 교통'이란 어떤 교통이어야만 하는가?

만약 내가 시장이라면 3가지를 시민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것이다.

첫째, 보도에 차들이 침범할 수 없는 교통을 만들 것이다.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보면 길가에 마치 주차장인 것처럼 차를 세워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보행자들을 위한 도로라고 말만 붙여놓은 보도일뿐 차들을 위한 편의에 우선한 도로임에 틀림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둘째, 노점상들의 불필요한 도로 공간 차지를 규제시키는 규제사항을 만들 것이다. 차라리 이런 노점상들의 길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몰라도 보행자 길을 방해하면서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들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은 보행자를 관심있게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보행자들을 편하게 쉬게 하기 위한 예술적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면서 물론 보행자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외에 많은 방안이 있겠지만 '보행자'들을 우선으로 한다면 지금의 교통문제를 까지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임지연(상도중1)

✱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첫째로 보도에 나와 있는 물건을 치우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보도가 좁아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할 뿐 더러 차도로 다녀 위험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배수구의 홈 방향을 바꿀 것이다. 지금의 배수구는 사람이 가는 방향대로 즉 세로로 홈이 나 있는데 그러면 작은 바퀴가 달린 물건들의 바퀴가 그 홈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흙의 방향을 가로로 바꿀 것이다.

셋째로 거리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할 것이다. 보도를 걷다보면 곳곳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데 그러면 냄새도 나고 불쾌감도 주기 때문이다.

김홍배(대일고1)

\*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다른 물건이나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놓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곳곳에 깨진 블록, 물 고인곳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고칠거다.

김은영(동일여고2)

\*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니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지하철을 빠져나가고 들어갈 때 계단에서는 그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지하철에도 짐을 나를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함으로써 편안하게 했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월드컵이 시작하면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함으로써 공기 뿐 아니라 차량이 많이 줄어 너무 좋았는데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2부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시 혼잡한 도로가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도 했다.

또한 쓰레기통을 곳곳에 설치하여 길거리에 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많은 상점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반 이상 또는 아예 가로막는 곳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단속함으로써 고쳐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정승아(진명여고2)

\*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우선 지금의 불편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내가 직접 체험해보니 주변의 쓰레기와 노점상인이 길의 대부분을 막고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 서울시장이라면 높은 벌금제를 적용시킬 것이다. 많은 반대의견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잘 지키기만 하면 벌금을 내지 않으니까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인식이라 생각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현상들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가 길거리에 버린 쓰레기, 그리고 상점 주인 바로 자신이 밖에 내놓은 쓰레기 등을 각각의 개인이 버렸을 때의 것은 작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너나 할 것 없이 버리게 되어서 지금의 그런 혼란한 거리가 되었다고 본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거리가 나아질 수 있을 거라 본다.

물론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조차도 지금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던가하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체험한 봉사활동처럼 사람들이 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봉사활동에 참여해 나가야 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공익광고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따라서 나는 제도적으로도 사람의 인식도 모두 조화를 이루는 길로 나아가게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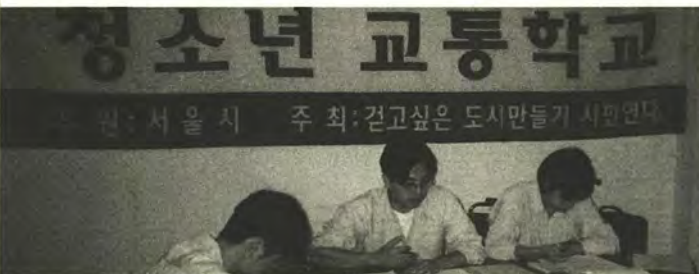
청소년 교통카드

... 2기

CS-4







## 청소년 교통학교 2기

**일시** 2002년 9월 15일(일요일)

**장소** 합정동 마리스타교육관

### 일정

---

9월 15일(일요일) 9:00-9:30	집 결
9:30-10:00	강 의
10:00-12:00	현장체험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5:00	토론 및 발표
	- 문제점을 중심으로 체험소감 발표
	- 정책제안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15:00	평가 및 마무리

## 1조는 이렇게

### 조사목적

도심지가 아닌 주거생활권의 보행환경을 조사하여 보행자를 위한 도로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

### 이동경로

합정역 - 한국전기공업소 - 홍익동물병원 - 와우산길 - 홍익대 - 신촌역

### 조사방법

휠체어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보도의 상태를 조사

### 조사도구

휠체어, 카메라

### 조사내용

보도블럭의 폭원, 보도의 관리 상태, 보도 주변의 환경 등






### 조사학생




김건아(성산중1)  
김명수(충암고2)  
엄태웅(신한고2)  
이찬형(선정고2)





조사결과

장 소	문제점
<p>교육관</p> <p>↓</p>	<p>새시공장과 인근 공사장에서 공사 물건과 새시를 보도에 내놓아 통행이 곤란한 상황</p> 
<p>한국전기공업소</p> <p>↓</p>	<p>공사장에 접한 보도블럭을 뜯어낸 후 임시방편으로 철판과 천을 깔아 놓아 휠체어 통행 곤란</p> 
<p>흥익동물병원</p> <p>↓</p>	<p>보도 위에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휠체어가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p> 

장 소	문제점	
<p>bar home</p> <p>↓</p> <p>홍익대앞</p>	<p>공사장의 건축자재와 철근</p>	
<p>↓</p> <p>와우산길</p>	<p>보도가 진행되던 방향으로 보도는 중단되고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가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 발생</p>	
<p>↓</p> <p>신촌</p>	<p>보도의 폭원이 좁고 경사를 이루고 있어 보행자의 경우 교행이 불가능하고, 휠체어는 보도 통행 불가능</p>	

## 2기 1조 체험소감문

김건아(성산중1)

\* 청소년 교통학교 1기가 매우 인상이 깊고 재미있어서 2기까지 참가하게 되었다. 4명이 한조가 되어 휠체어를 끌고 합정역부터 시작해서 신촌까지 걸어서 체험하게 되었다. 한번 해본지라 1기와 별로 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체험을 하고나니 전혀 틀렸다. 가장 쉬운 여행용가방에 비해 바퀴까지 이상한 휠체어를 끌고 다닌 이번 체험은 훨씬 더 서울보도의 사태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바퀴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도대체가 휠체어가 술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란 없었다. 특히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는 다세대 건설이 한창이었고, 그래서 공사용 철근이나 나무들을 보도에 쌓아놓아서 휠체어는 쉽게 지나가기 어려웠고 군데군데의 쓰레기와 보도위에 주차된 자동차의 절묘한 조화는 장애인이었다면 혼자서는 전혀 지나갈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런 문제들과 더불어 차들이 쉽게 주차장에 들어가게 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보도를 가파르게 만들어 사람들도 지나기도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는 신촌 근처에는 경사가 너무 심해서 휠체어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홍대와 신촌을 지나가는 '와우고가차도'는 보도가 어둡나하고 찾아보니 폭이 1m도 채 안되어보이는 보도가 있을 뿐이었다. 정말 너무나한다. 교통이란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고 사람이 편리하도록 이용하는 수단인데, 어느새 주인의 자리가 하인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 무심코 불편했던 것만으로 생각했던 보도의 여러문제들을 청소년 교통학교를 함으로써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오늘도 역시 많은 것을 느끼고 간다.

이찬형(선정고2)

\* 1기때 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한 2기는 다수가 행동했을 때와 달리 작은 행동이라도 정숙하고 조심해야했다. 이번에는 휠체어를 체험하였는데, 여행용가방을 들고 체험했던 것보다 더 힘이 들었다. 보도가 없는 곳이 종종 있었으며 집을 짓고 있는 곳



이나 발전소 앞 보도는 휠체어가 다니기는커녕 일반사람들도 걸어다니기에 아주 불편한 곳이었다. 돌아올때는 마을버스를 탔는데 승차하기에도 불편하고 도착해서 하차하기에도 무지 불편한 점이 많았다.

더 많은 문제점들은 3기 때도 다시 느껴봐야 할 것 같고 3기 때는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명수(충암고2)

\* 비록 1기에 비해서 참가한 사람은 적었지만 오히려 오손도손 토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도 레크레이션 시간이 없어서 다소 아쉬웠다. 이번 체험에서는 우연인지 저번하고 같은 휠체어를 타고 신촌까지 갔다오는 것이었다. 4명 중 비교적 가벼운 나랑 선생님이 번갈아 타며 신촌까지 갔었다. 이번에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쉽게 갔다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었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일요일이라 지나다니는 사람이 적었고 길이 울퉁불퉁하고 길거리에 나와있는 쓰레기와 기타등등 때문에...

그리고 차도보다는 보도만을 선호하는 우리 선생님 덕분에 고행의 길을 걸어갔다 온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던 체험이었고 휠체어에 앉아 편하게 거리를 돌아

다닐 수도 있었고 가끔 휠체어를 끌 때는 선생님이 생각보다 가벼워 편하게 신촌까지 갔다가 올 수 있었다. 비록 저번 1기때-쌍둥이 꼬맹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보다는 많이 힘들었지만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었다.

## 엄태웅(신한고2)

\* 1기에 이어 2기의 휠체어 체험은 역시나 힘들었다. 물론 휠체어를 밀고 끌고하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보도의 상태였다. 금이 가 있는 보도블럭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심한 경사와 보도를 막고 있는 상점의 물건 쌓아놓기, 트럭의 보도 점령 등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의 폭이 채 1m도 되지 않는 곳은 매우 위험하고 불안해 보였다.

우리가 체험한 지역은 신촌지역이다. TV뉴스에서 장애인 대학생이 학교의 시설에 대한 불편으로 법원에 기소하여 승소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만약 장애인으로서 그런 어렵고 불편한 보도를 다니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지 예상이 된다. 물론 평범한 보통사람의 경우도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자동차 그리고 주차를 위한 경사진 보도, 보도에 쌓인 물건들로 막힌 도로를 다닌다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누구나 한번은 느끼는 난처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시정요구를 해보자.

## 2기 1조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김건아(성산중1)

\* 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교통이 존재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은 말을 탐으로써 조금더 빨리 길을 갈 수 있었고 서양 사람들은 마차라는 것을 이용하여 교통을 만들어냈다. 그땐 분명히 사람들이 우선이었지 차가 우선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주인과 하인의 위치가 뒤바뀌고 있다. 사람들이 다녀야 할 보도보다는 차도를,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동차의 빠른 속도를 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교통은 날로 급속하게 발전했고 그에 비례해 죽어가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우리는 우리 생명을 담보로 교통을 발전시켜왔다.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철저한 차량 10부제를 시행하겠다. 지난 월드컵때 우리는 2부제를 했었고, 차량도 반으로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일부 건물에서는 10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숙하다. 그 미숙한 10부제를 강화시키고 도로의 반을 자전거도로로 만들 생각이다. 전에 목동에 가본적이 있는데 그 곳의 도로는 매우 깨끗하고 자전거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자동차의 수는 신촌이랑 판이하게 달랐다. 그리고 속도도 매우 천천히 달렸다. 나는 차도보다는 보도를, 빠른보다는 생명을 추구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 비록 지금은 내가 시장은 아니지만 진짜 서울시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변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장애인, 어린이, 노인, 어른, 청소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통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게 내 바람이다.

이찬형(선정고2)

\* 서울시장이라면 먼저 교통문제부터 해결할 것이다. 지금 가장 큰 교통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주차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차들과 대기오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보단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면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 조건으로 만들고 사람이 적게 타는 승용차를 최대한 줄일 것이다. 버스를 지금보다 더 많이 추가시키고 스쿨버스 같이 직장버스도 좋게 잘 만들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서울에 큰 문제점은 학교 붕괴문제이다. 지금 고등학생들 반이상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만화책을 보는 등 난장판이 되가고 있는데 이점은 학생들이 학원과 과외를 믿고 그러는 것 같다. 이문제는 학생들에게도 있지만 학교전체에 도 있는 것 같은데 학교제도부터 새롭게 연구해서 바꿔야 하겠다.

엄태웅(신한고2)

\* 서울은 한국의 중심이다. 이제 월드컵의 결과로 한국이 주목되는 이 시점에 한국의 중심인 서울 또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외국인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어떤 모습에 놀라고 또 이런 모습에 눈살을 찌푸릴까. 아마도 거리를 걷다보면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까. 서울의 도로 아니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 아닌 자동차 소통의 원활이 먼저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교통과 관련한 사고가 매년 엄청난 건수로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교통의 원활함보다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먼저 신경쓰는 것이 최고의 서울시장의 모습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김명수(충암고2)

\* 학교건물을 포함하여 학교주변을 새롭게 정리하겠다. 특히 학교건물의 경우 우리학교는 전통과 역사가 모두 건물에 담겨져 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학교의 관, 푸세식에 가까운 화장실... 처음에 고등학교에 왔을때는 이게 학교인지 의심이 갔었다. 인문계학교는 공부만 하면 되는 곳이기는 해도 정말 너무 한다. 강남의 어느 학교는 인터넷 도서실이라는 시설까지 있는데 우리학교는 변변한 도서실 하나없고 교실을 독서실로 쓰고 있는 형편이다. 같은 서울에 있는 학교이면서 동네에 따라 그 학교는 차이가 많이 난다. 잘사는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하고 너무 차이가 심한 것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주로 이용해서 다니는 길들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니고 할 때만이라도 차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위험하지 않은 길을 만들어 주고 싶다. 내가 만약 서울시장이라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서울의 학교를 만들 것이다.





최소년 교통안전

... 3기

CS-4







## 청소년 교통학교 3기

일시 2002년 10월 27일(일요일)

장소 조계사 불교대학

### 일정

---

10월 27일(일요일)	8:30-9:00	집 결
	9:00-10:00	강 의
	10:00-12:00	현장체험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5:00	토론 및 발표
		- 문제점을 중심으로 체험소감 발표
		- 정책제안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15:00	평가 및 마무리

# 1조는 이렇게

## 조사목적

도심내의 보행자를 위한 공간인 보도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 조사하여 보행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보도에 대한 고찰

## 이동경로

조계사-불교대학 - 안국동 로타리 - 안국역 - 종각역

## · 조사방법

여행용가방을 가지고 불교대학을 시작점으로 하여 목적지까지 보도를 돌아보며 문제지점은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

## 조사도구

비디오 카메라, 여행용 가방

## 조사내용

보도의 구조, 보도표면, 보도여유폭 미확보, 보도상 적치물, 보도로의 차량침범 구간



## 조사학생

- 고우리(동일여고)
- 김지은(동일여고)
- 김지혜(한성여중)
- 노미란(한성여중)
- 신소희(한성여중)
- 채인영(상신중)

## 조사결과

문제항목		개소	점수
보도의 구조	기울어진 보도	4	-4
보도표면	미끄럼	0	-48
	함물파손	36	
	돌출	7	
보도상 도로시설물	보도 여유폭 미확보	5	-7
보도상 적치물	불법 옥외광고물	2	-12
	상품적치	6	
차량침범	보도로 차량 출입	11	-10

\* 점수는 0점을 기준으로 위험 -1, 매우 위험 -2로 계산함



❶ 불교대학 앞 보도에는 노점상과 불교용품상가에서 보도에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고 있어 좁은 보도가 더욱 좁다.



❷ 보도블럭이 파손된 부분 중 시설물이 있던 자리에 지상부분만 철거한 후 잔여시설이 돌출되어 있어 매우 위험하다.



### 3기 1조 체험소감문

신소희(한성여중1)

\* 한국동까지 갔다가 다시 조계사까지 오는데 무려 1시간 30분이 걸렸다. 가는 길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바닥에 금이 가고 덜컹덜컹 거린 곳, 가게 안에는 텅텅 비었는데 가게 앞에 물건을 놓고 팔는 모습, 자동차를 보도 위에 세워놓고 있는 모습 등이 있었다. 불법주차한 아저씨는 오히려 사진을 찍어달라고까지 했다. 아저씨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 같다. 아저씨같은 사람을 찍는건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다. 참 뻔뻔스런 모습이였다.

고우리(동일여고2)

\* 선생님의 권유로 오게 된 교통학교에서 내가 살고 있는 서울에 대해서, 정확히 서울의 도로에 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그냥 길을 걸어간다면 알아채지 못할 것들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주의깊게 지나다녀 보니까 여기저기 위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보도블록이 깨져 있는 곳은 수도 없이 많았고, 경사진 곳도, 턱이 높은 곳도, 지나가기 힘든 곳도 많았다. 우리가 가지고 다닌 가방은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자주 막히고는 했다.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는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휠체어를 탄다면 꽤나 고생을 할 것 같았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집 주변과 학교 주변에도 이런 곳은 참 많다. 보도블록이 깨져 있는 곳도 많고, 그런 곳에 발이 걸려 넘어진 적도 있다. 또 턱에 발을 잘못 디어 발을 뺀 적도 있었다.

거리를 걸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기심을 엿볼 수 있었다. 나조차도 내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심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에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노점상들은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 거리의 반 이상을 팔 물건들로 채우고, 보도에다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보도블록이 조금 깨진다 해도 '내것'이 아니니까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 같다. 도로는 '내것'도 되는 '우리의 것'인데 말이다.

그리고 이런 건 정부에서 고쳐줄 수도 있는데, 아니 당연히 고쳐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차도보다는 보도가 더 중요하게 여기나 보다. 차도는 자주 포장도 하고 하던데, 보도블럭은 어느날 하루 날을 잡아서 한번에 해치우고 마는 것 같다. 앞으로 나라에서 좀 더 보도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나도 도로를 좀더 유심히 보면서 고칠 곳이 있으면 구청에 알려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김지은(동일여고2)

✿ 우선 여기 오기 전까지 청소년 교통학교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선생님의 권유로 오게 되었는데, 와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듣고, 아이들과 조를 짜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보도의 문제점들을 캠코더로 찍기도 하고 우리가 못 느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보도는 여행용가방을 사용해서 문제점들을 알아보았다.

평소에는 길을 가면서 먹거리를 사 먹을 수 있는 노점들도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에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 보지를 못했었다.

오늘 체험을 다 끝나고 나니 우리가 다니는 보도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바로 고치지 않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차도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다니는 보도에는 무관심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다쳐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마는가 보다.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사람보다 차를 더 많이 중시한다는 것과 차 때문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노점상들은 조금만 양보를 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길을 다닐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함께 하는 활동이었다.

김지혜(한성여중1)

✿ 너무 심하다. 우리나라 도로가 이렇게 훼손된 도로가 많으니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사람들이 돈에만 관심있고 걸어 다니는 도로에는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다니다 보니 엉망인 도로가 정말로 많은데 진짜 너무 심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혼자는 물론이고 다른사람과 함께여도 잘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 같다. 사람 다니는 길이 이래서

장애인이 다니고 싶겠는가? 우리나라는 말로만 장애인을 위하지 정말로 실천은 눈꼽만  
큼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사람이 옆으로 넘어질 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위험했다. 앞으로  
구청, 시청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땅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노미란(한성여중)

\* 오늘 교통학교 온 것이 너무 즐거웠다. 출기도 했지만 곳곳이 이겨내니 마냥 즐  
거웠다. 우리 조는 1조, 조사한 내용은 보도에 대한 것이었다. 그냥 걸을 땀 잘 물  
랐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심한 것이 많았다. 보도는 움푹 패인 곳도 있고 깨진 것도 있  
고, 차나 오토바이가 보도에 딱하니 서 있는 것들을 보고 많은 점을 느꼈다. 그 일을 하  
는 사람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신경을 썼다면 보도는 상처입는 일은 없을 것이  
다.

만약 구멍이 움푹 패인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나가시다 그 구멍에 발이 빠지  
시게 되면 다칠 것이고, 어린 꼬마아이들은 무심코 뛰어가다 울통불통한 도로에 발이 걸  
려 넘어지거나 다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생각해서 보도를 걷기 쉽고 다니  
기 쉽도록 정성껏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앞으로 길을 걸을 때 생각 없이 걷지 않고 하나 하나씩 꼼꼼히 따져 봐야할 것  
이고 남을 배려해야 할거라고 생각된다.

채인영(상신중)

\* 처음엔 아무 느낌없이 했는데 하면 할수록 문제점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느꼈다.  
자동차가 인도에 있고 쓰레기가 아무데나 버려져 있고 인도에 깔려져 있는 돌이  
울통불통하고 구멍뚫린 데도 있고.. 이런 걸 빨리 고쳐야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관광을 와서 이런 걸 본다면 이 나라는 더럽다는 등 나쁘게  
생각할 것 같아 부끄럽다.



### 3기 1조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고우리(동일여고2)

\*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도로를 많이 고쳐야 할 것 같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도로가 아닌 다니기 편리한 도로로 만들어야 하고 노점상들도 많이 없애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서 말이다.

휠체어를 타고, 유모차를 끌고도 편안히 지나도록 보도의 너비도 늘리고 단속 같은 건 더 심하게 하겠다.

김지은(동일여고2)

\* 우선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뽑아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첫째로 우리들이 다니는 거리의 불편함을 고쳐주고 싶다. 우리들은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고 우리가 다니는 거리가 더 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도블럭의 훼손은 본체도 하지않고 차도만 신경쓰고 돈을 더 투자한다면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

만약을 생각해 보자.

차도가 좀더 깨끗하고 좋아진다면 물론 편해지긴 할 것이다. 그러면 차도의 수가 늘어나고 폭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의 수와 폭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둘다 개발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로는 노점상들의 문제이다. 물론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예 없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수를 제한해서 그것들의 수를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보도의 폭이 조금이나마 넓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다른 일은 잘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만은 꼭 해결을 하고 싶다. 모든 분들이 뽑아주신 만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더 살기 좋고 편한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신소희(한성여중1)

\* 도로에 차도를 좁게 만들어서 자전거, 롤러블레이드 등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그리고 시설을 사람들에게 좋게 만들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

노미란(한성여중1)

\*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오늘 체험했던 거리를 좀더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성껏 만들도록 힘쓸 것이다. 그리고 소음이 많이 나는 곳에 아파트와 집은 절대로 세우지 못하게 하고 그 주변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나무를 많이 심을 것이다.

그리고 보도위로 차가 올라와 주차가 된다면 벌금을 낼 수 있게 할 것이고 보도에서 부득이하게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늙으신 노인분들과 장애인이 힘들지 않게 도로에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 것이다. 조금 씩이라도 좋으니 좀더 나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채인영(상신중1)

\*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고칠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전에 내가 먼저 고치고 깨끗하게 만들 것이고, 자동차가 인도에 있지 않게 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게 하고 인도에 깔려진 돌도 사람들이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하도록 내가 직접 나서서 고치고 정리할 것이다. 외국인들이 서울로 관광을 와도 와!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지혜(한성여중1)

\* 만약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도로 곳곳에 나 있는 구멍이나 턱이 높은 곳을 사람을 시켜 지키겠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들을 빨리 고쳐 놓겠다.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만들고, 광고물 같은 것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땅에는 놓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차량이 보도내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할 것이다. 만약에 세워놓으면 벌금을... 그리고 사람이 차도로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

## 2조는 이렇게

### 조사목적

보행공간에서 물리적 시설물뿐 아니라 실제 어느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조사해봄으로써 소음도 보행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을 알리는 계기 마련

### 이동경로

조계사 불교대학 - 중  
각역 - 관철동 젊음의 거  
리 - 광고

### 조사방법

4개 지정 지점(강의실, 지하철 역, 광고, 관철동 젊음의 거리)을 포함하여 이동경로를 따라 주요 소음원과 소음도를 측정하고, 젊음의 거리에서는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관리상태와 유해환경 요소, 시설물 이용 행태를 촬영



### 조사도구

소음측정기, 비디오 카메라

### 조사내용

시설물의 관리상태, 소음도, 유해환경 요소

### 조사학생

김지희(서초고1)	김혜지(한성여중1)
박선형(한성여중1)	박소영(한성여중1)
이현영(서초고1)	장윤주(상신중2)

## 조사결과

측정장소	소음정도(dB)(최대/최소)	주요소음원
강의실	79/52.2	사람
버스정류장	91/76	버스
밀레니엄플라자 앞	76/87	자동차
밀레니엄플라자 지하	104.5/97.2	대형TV
지하철 1호선 개찰구	82/72	지하철, 사람
지상 종각역 앞	90.4/75	자동차
관철동 입구	95.1/77.5	자동차
젊음의 길 I	96.4/68.7	자동차
젊음의 길 II	84/67.9	음악소리
광고(청계고가 입구)	89.2/73.7	자동차

❶ 도로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광고 유인물까지 쓰레기와 섞여 관리가 되지 않아 쾌적하지 못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 3기 2조 체험소감문

박소영(한성여중1)

\* 음.. 넘 심하다... 정말로 공무원아저씨들은 뭐하시는건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간다. 규정을 만들었으면 실천을 해야지, 정말로 짜증난다.

또 노점상은 왜 이리 많은지 길을 걸어 가는데 짜증이 절로 났다.

우리나라는 차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가 정녕 다니는 인도는 신경도 안 쓴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다. 근데 우리는 다리랑 손이랑 멀쩡해서 괜찮지만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김지희(서초고2)

\* 애들이 다 모이고 나서 조를 정했다. 중1애들과 나, 현영이가 같은 조가 되었다. 우리조는 길을 다니면서 부서지고 불편한 길을 찍고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내가 서기를 맡고 현영이가 비디오 카메라를 맡았다. 으~손이 너무 시려워서 글씨가 잘 안 써졌다. 도중에 비디오 카메라로 길 상태를 찍으려고 했는데 작동이 잘 되지 않아서 찍지 못했다. 알고봤더니 우리가 잘못 조작을 했었던 것이다.

청계고가도로가 시작되는 광교라는 곳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사진도 찍었다. 젊음의 길이라고 하는 종로의 어느 골목도 돌아보았다. 그런데 웬 쓰레기가 그렇게도 많은 건지 걷고 싶은 젊음의 길이 아니라 지저분한 동네 뒷골목 같았다. 보도가 깨진 곳이나 이런 것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사실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 일반사람들의 습관이 문제인 것 같다.

박선형(한성여중1)

\* 그저 쓰레기나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고, 차가 오면 벽 쪽에 있다가 다시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전에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려고 거

리에 나서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마구 보이기 시작했다. 거리의 무법자들이 자리를 버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냄새가 심한 쓰레기, 주차된 자동차, 보도에 있는 간판, 이가 빠진 보도 블록, 화를 내고 민원을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의 보행자들은 너무도 관대했던 것 같다. 관대함이 나라를 무법자의 세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다. 때로는 엄함으로 나라를 가꾸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혜지(한성여중1)

\* 나는 오늘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 재미는 있었지만 날씨가 추워서 엄청 고생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우리는 카메라, 소음기,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나갔다. 밖에 나오니까 정말 얼어 죽을 뻔 했는데 막 돌아다니니까 약간의 바람과 정이 들어서 그런지 처음보다는 덜 추웠다.

소음기로 소리를 담고 조사지에다가 적고 사진기는 보도에 금이가거나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거나 공공전화박스에 쓰레기가 있는 것도 찍었다. 정말 우리나라가 맞나 싶었다.

나도 이제 함부로 길거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먼저 중1 애들 4명과 같은 조가 되었다. 서로 역할 분담을 하였는데 카메라 담당은 내가 했고, 보행환경조사표는 지희가 담당하였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보의 바닥이 많이 깨져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쓰레기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허다하였다.

지하철 4번 출구로 나오면 "젊음의 길"이란 곳이 있었다. 이 길엔 차량통행금지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도보에 주차하는 사람이 있었다. 모두가 돌아가면서 소음을 측정하였고, 사진 찍고, 비디오 때문에 안간힘을 쓴 일 등등 재미있었다.

보행 환경을 조사하기 전까지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쳤었는데 오늘 이 경험을 하고 난 후에는 보행환경에 더 신경이 쓰일 것 같다. 차도에 신경쓰고 투자하는 만큼 도보에도 그런 신경과 투자를 해서 개선하면 좋겠다.

#### 장윤주(상신중2)

\* 아무생각이 없이 걷던 인도가... 하나하나 따져보니 이렇게 불편한 것인줄 몰랐다. 이곳저곳 울퉁불퉁하게 올라온 보도와 인도가 한 두 곳이 아니었고 좁은 보도에 즐비하게 늘어져있는 노점상들이란. 정말 가관이였다. 만약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었다면 서울시내를 혼자 걷는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힘들 것 같다. 정말 우리나라의 보도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 1기 2조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박선형(한성여중1)



서울시 각 구구청장들에게...

나는 서울시장이에요. 내가 요즈음 길을 걷다보니 바다에 붙은 껌이 기분을 나쁘게 하고 여기저기 들리거나 깨진 보도블럭이 나의 구두굽에 걸리거나 닳게 하고, 공중전화를 하려고 하면 주위의 쓰레기가 너무 많아 불편하여 전화하는 사람과 괜히 싸우기도 해요. 또 나의 대단한 시력이 화려하고 지저분한 네온사인에 상할까봐 두렵소. 내가 지금을 대줄테니 까먹지 말고 제대로 쾌적하고 깔끔한 서울시를 만드시오. 기간은 한달이요.

박소영(한성여중1)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보도를 완벽하게, 울퉁불퉁한 것을 일정하게 만들 것이다. 보도에 노점상을 다 처리하고 꼭 정해진 보도에만 노점상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도에 차가 서있으면 아주 멀리 견인해 갈 것이다. 찾으러 오기가 힘들도록 말이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도보에 놓으면 오토바이 바퀴를 뺀 다음에 그 오토바이를 3년간 못 타게 한 다음에 오토바이도 못 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그래도 사람들이 잘 지킬런지 모르겠다.

김혜지(한성여중1)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길거리나, 차도 등등 다 돈들여 새롭게 정리할 것이고, 차도에다만 돈 많이 쓰지 않을 거다. 쓰레기는 길에 나와서는 버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버리게 되면 벌금을 내게 할거다. 다른나라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 다른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보고 정말 깨끗한 나라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쓰레기 없는 나라로 만들꺼다.

김지희(서초교2)

\* 일단 보도옆에 버려진 쓰레기를 자주자주 청소하도록 할 것이다. 난 솔직히 보도가 불편한 것보다 쓰레기가 있는 게 더 짜증난다. 그리고나서 울퉁불퉁한 길도 고칠 것이다.

이현영(서초교2)

\* 차도에 신경쓰고 투자하는 만큼 보도에도 그런 관심과 투자를 해서 개선시킬 것이다.

특히 사람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보를 새로 깔 것이다. 보도에 쓰레기통이 많이 설치하고 재활용 쓰레기통과 병과 캔을 버리는 쓰레기통을 구분해서 세워 놓을 것이다.

장윤주(상신중2)

\*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서울과 서울인근 수도권의 보도를 깨끗하고 울퉁불퉁한 곳이 없어 노약자와 어린이와 장애인이 걷기 편하고 휠체어가 아무데에도 걸리지 않을 만큼의 길이 매끄러운 도시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런 인도가 불편한 곳을 지적해주는 시민단체를 후원하여 시민단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 3조는 이렇게

#### 조사목적

보행공간에서 물리적 시설물뿐 아니라 실제 어느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조사해봄으로써 소음도 보행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을 알리는 계기 마련

#### 이동경로

조계사 불교대학 - 종각역 - (버스로 이동) - 동대문운동장 쇼핑타운 - (지하철로 이동) - 종각역



#### 조사방법

4개 지정 지점(종로, 동대문 두타와 밀리오레 앞, 버스안, 지하철 안)을 포함하여 이동 경로를 따라 주요 소음원과 소음도를 측정하고 조사하는 모습 촬영

#### 조사도구

소음측정기, 비디오 카메라

#### 조사내용

대중교통 수단별 이용시 소음도

## 조사학생

김건아(성산중)  
 권재선(한성여중1)  
 박은지(한성여중1)  
 엄태웅(계남고2)  
 윤지아(한성여중1)  
 조 아(한성여중1)  
 황세연(동덕여고1)

## 조사결과

측정장소	소음정도(dB)(최대/최소)	주요소음원
평화당 앞	80.4	버스
밀레니엄플라자 앞	81.8	사람, 자동차
종각역(레코드가게앞)	75.8	스피커 음악소리
종로2가 버스정류장 앞	82.4	버스
23번 시내버스 안	79.3	안내방송, 라디오
평화시장 고가도로 밑	74.5	자동차
두타 앞	82.2	음악소리
두타 내부 에스컬레이터	60.4	사람
두타 내부 엘리베이터	40	기계소리
밀리오레 앞	83.9	음악소리
지하철 이동 통로	74.1	사람
지하철 개찰구	76.8	사람
지하철 역 내부(반대편 지하철 진입시)	96.2	지하철
지하철 역 내부(지하철진입시)	102.0	지하철

### 3기 3조 체험소감문

김건아(성산중1)

\* 정말..이게 벌써 세 번째이다. 똑같은 프로그램이니까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번엔 “소음”을 주제로 이르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참가하게 되었다. 확실히 이번에는 소음측정을 해봄으로 느낀 것도 많았다. 소음은 우리곁에 항상 있는 거였지만 이렇게 실제로 측정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소음의 힘은 작은 것 같지만 매우 크다. 난청이나 신체장애 등 여러 가지를 불러 일으키는 등 소음의 힘은 매우 크다. 일단 소음은 “불쾌감”을 안겨준다. 특히 밀레니엄 프라자 지하에 무분별음악은 듣기를 떠나 매우 짜증이 났다. 음악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데 그것이 커지면 결국 “소음”뿐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 때문에 전부 불쾌감을 알고 살아가는 것 같다.

나 역시 그렇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면 그날 짜증이 난다. 그건 소음의 역할 중의 하나이다. 내 신경 하나 하나를 자극하는 소음은 보도블럭 문제와 더불어 개선해야 할 문제중 하나인 것 같다. 이번 체험을 통해 또 깨달은 것은 크다고 생각한 소음은 작았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많이 지나가는 교차로나 버스정류장은 90~100dB 정도 나올거라 생각했으나 의외로 70~80dB정도 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의 목소리가 80dB정도 한다는 소리에 사람목소리가 얼마나 큰가를 실감했다. 이번 체험을 하고 느낀 게 하나 있다. 체험결과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신이 소음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또 모르고 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니 나도 혹시 주변사람들을 방해하는 소음을 일으키지는 않을까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조아(한성여중1)

\* 체험소감은 한마디로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비디오 카메라로 찍었는데 보도중에 파손된 곳이 너무 많았다. 그때마다 부서진 곳,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곳, 소음이 크게 나는 곳 등을 찍었다. 2번째 맡은 일은 측정한 숫자를 쓰는 일을 맡았다. 버스의 안내 방송소리, 벨소리 등등 많은 소리를 측정하였다. 세 번째론 소음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일을 맡았다. 다시 찍고 싶고, 또 하고 싶다.

\* 참으로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평소 관심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교통”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주위의 도로나 차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통해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진실된 모습을 알 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사회를 위해 해야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스스로 대답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교통학교를 떠나기 전,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난다. ‘모든 것은 정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의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 기준이다.’ 참으로 인상적인 말이었기에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다. 그리고 교통학교를 통해 이 말을 직접 피부로 느꼈다.

우리가 보았던 여러 시설은 정말로 ‘우리’가 아닌 이 사회의 일부 ‘정상인’이라 불리우는 계층만을 위한 것이었다. 지나치게 높아 휠체어를 탄 상태로는 다닐 수 없는 계단부터 구석 구석 좁은 통로까지... 나는 너무도 많은 생각을 해 보았다. 교통학교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생각이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기준을 바꾸어, 이 시대 사람들 모두가 통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나도 무엇인가 한 몫 해야겠다.

\*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이렇게 더럽고 불편한 것을 이제야 알았다. 길거리에 버린 쓰레기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더러울 줄은 몰랐다. 또 튀어나온 돌, 시멘트로 발라놓은 하수구, 부서진 돌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지하철 역안에서는 지하철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소리는 정말 시끄러웠고, 청계고가도로가 시작되는 도로변도 시끄러웠다. 지하철역 안에 있는 음악가게에서는 스피커를 너무 크게 틀어놓아서 옆을 지날 때 고막이 터질 것 같았다. 서울에서 걸어다니기가 별로 좋지 않은 곳을 열려 바꿔야겠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도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심하게 닦아주어야 할 것 같다. 서울시를 알아보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다음에 또 해보고 싶다.

\* 캠퍼도 작동도 해보고 소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고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기계들을 만져볼 수 있어서 흥미있는 체험이었다. 점심에 먹은 햄버거도 좋았고, 동대문운동장까지 갈때는 버스를 타고, 올때는 지하철을 탔다. 타고 가면서 소음을 켜는데 지하철이 도착할 때 소리는 평소에도 크다고 느꼈지만 96.2dB로 꽤 높은 수치로 나왔다. 밀리오레나 두타의 스피커소리도 소음이긴 한데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음이 되진 않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소음이 되기 때문이다.

## 엄태웅 (계남고2)

\* 1기와 2기에 이어서 참여했다. 이번엔 휠체어 체험이 아니라 소음에 대한 체험이다. 소음이란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소음이다. 물론 수치상으로 소음의 정도가 있지만 큰 스피커에서 흐르는 음악소리가 누구에겐 소음이고 누구에겐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는 점에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소음이라는 이야기이다.

남들이 다 자는 밤에 파리 한 마리가 웅웅거리며 잠을 깨운다면 그 파리소리까지도 소음이 되는 것이다. 이번엔 소음이라는 것을 체험했다. 그리고 소음에 아주 무감각했었던 나를 알았고 소음과 관련된 건강문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 3기 3조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엄태웅(계남고2)

\* 시민여러분, 저는 새로운 서울시장 엄태웅입니다.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저 엄태웅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에 보다더 관심을 기울여 정말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 이끌고 싶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 시민 여러분의 여러문제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보도 상태의 양호하지 못한 점과 거리소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문제 중 소음을 먼저 꼽고 싶습니다. 물론 서울의 상가와 인구 밀집에 이룬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대형마트와 쇼핑몰이 세워지면서부터 그 곳에서 흘러나오는 소음 때문에 살기 불편함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가 아프시고 밤잠을 해매십니까... 저 또한 그런 소음에 매우 시달리는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불편한 점을 제가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소음 규제를 강화시켜 조용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시간대에 따라 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자동차들의 경우 크랙션을 자주 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리는 횟수제한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여러분들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에 관한 민원을 따로 특별히 받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권재선(한성여중1)

\* 차도보다는 보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그리고 길거리 노점상 같은 걸 좀 줄이거나 좁히고 보도를 넓힐 것이다. 또 지하철 안에 지하철이 들어올 때 시끄럽지 않도록 소음방지장치 같은 것을 설치해야겠다. 도로에 신경쓰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도 이같이 힘쓰고 매일매일 보도를 점검하는 팀을 짜서 돌아보게 하겠다. 도로변은 진짜 시끄러웠는데 버스나 자동차 소리가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사람들과 상의해서 방안을 결정해야지.



\* 내가 만약에 서울시장이라면 우선 지하철 소음을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처럼 사람이 서있는 곳에 방어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를 튼튼하게 만들고 되도록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횡단 보도 옆엔 과속방지턱을 만들 것이다. 차가 좀 다치겠지만, 그런 걸 한번이라도 당하면 조심하겠지만,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즉각 조치할 것이다.



\*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우선 걷는 보도블럭을 아주 평탄하게 할 것이다. 도로처럼 아주 평평하게 말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더 평평하다면, 걸기도 아주 편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기지 않아서 걱정이다. 그래서 차도에서 타고 다니는데, 정말 위험한 것 같다. 서울시장이라면 차도와 도로사이에 벽을 놓고서 막아놓고 싶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다. 또 아이들이 다니기도 너무 위험하고 말이다. 조사를 해보긴 하였는데, 너무 소음이 심하고, 도로 주변

에 있는 건물들은 너무 많은 피해를 받을 것 같다. 지하철 소음도 96.2dB 까지도 나왔다. 지하철 소리를 좀 더 죽이고, 온 세상의 소음을 줄이도록 해야겠고, 지하철이 지하에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표 사고, 타고 내리고 정말 힘든거 같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고치고 싶다. 그리고 거리에 노점상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주로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가게를 차려드리고 싶고, 지하철 계단에 장애인 전용 계단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 길에 있는 맨홀도 좀 더 신경을 쓰고, 도로의 바닥도 색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깔고 싶다. 저녁에는 가로등에 불이 잘 켜지도록 설치하고 싶다.

황세연(동덕여고2)

\* 하나, 우선적으로 장애인용 버스를 신설하여 그들이 통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여건이 나아지면 일반버스에도 장애인용 휠체어 이동기를 설치하여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확대하겠다.

둘, 보도에 투자를 늘려 보도확충에 힘쓰겠다.

셋,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에 대해 더욱더 엄중히 처벌하겠다.

넷, 상점마다 전방 2~3m를 의무적으로 비워두게 하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다섯, 노점가능지역을 지정하여 난립하는 노점행위를 제한한다.

윤지아(한성여중1)

\*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차도를 되도록 없애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차도보다 인도  
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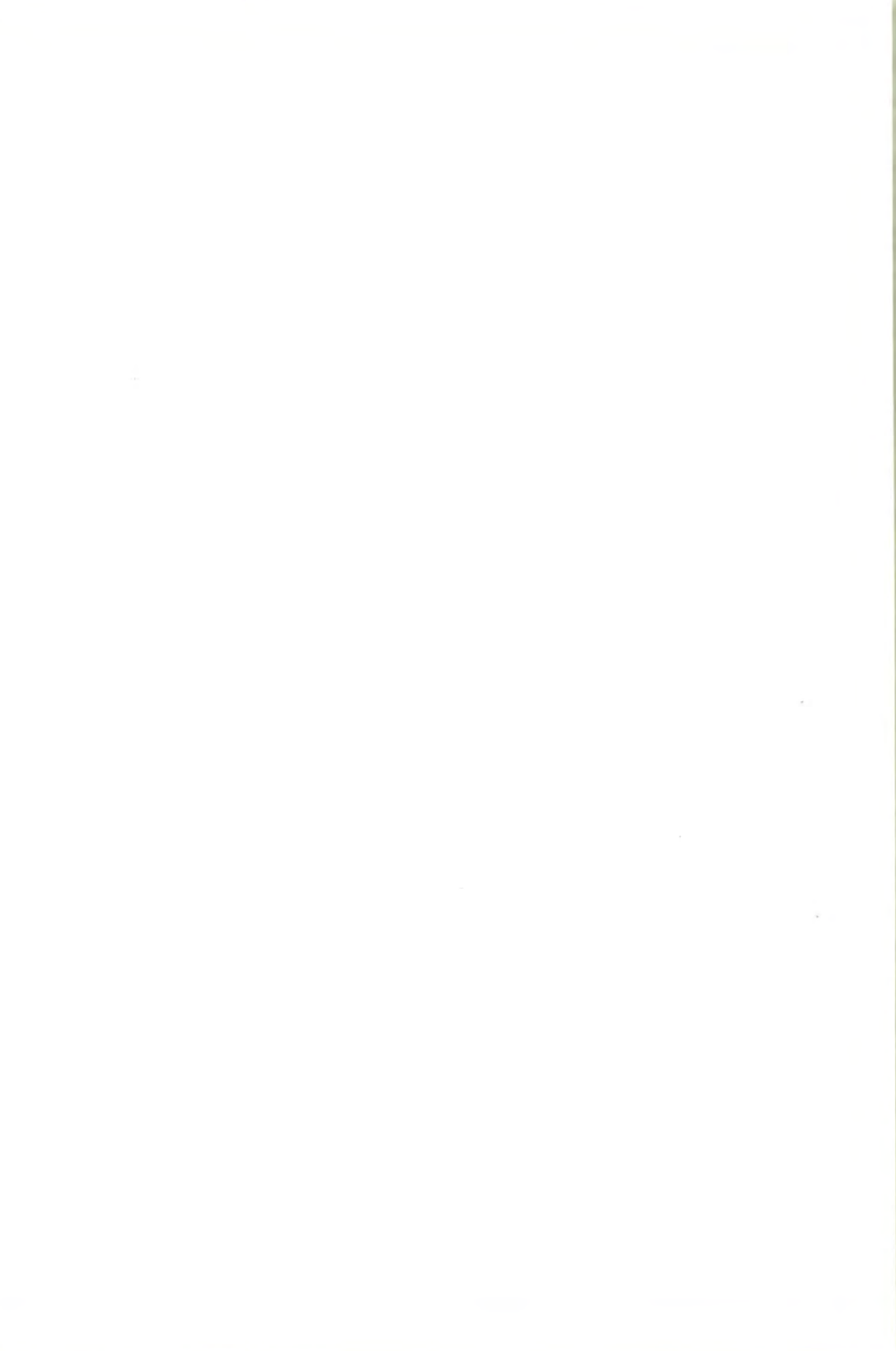
이렇게 하면 차가 다닐 곳이 없으니까 잘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보도를 좋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인도가 차도보다 좋고 많으니까 걸어다니면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대신 버스와 지하철 택시같은 대중교통수단을 늘리고 놀러갈 곳을 많이 만들고 버스와 지하철 택시 같은 것은 매연이 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 소음방지에 대해 신경을 쓸 것이다. 보도문제나 교통환경문제와 더불어 소음방지에 중요성을 깨닫고 소음방지도 생각해 보았다. 일단 '소음'은 쾌적한 환경을 무참히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물론 이 모든 세상의 소리는 다 소음에 속하지만 견딜 수 없을 만큼 시끄럽게 소음을 만든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실제로 서울시내는 소음방지가 매우 허술하다고 생각한다. 살지는 않았지만 내 친구 중 길가에 집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평소 그 친구는 시끄러운걸 매우 싫어했는데, 여름에 친구집에 놀러가보니 시끄러워 살 수가 없었다. 길가에 있는데다가 옆집이 식당이어서 밤이면 술주정 부리는 사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한다. 소음 방지책도 없는 이런 집에서 사람이 산다는 건 결국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난청에 걸리거나, 성격이 난폭해질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소음방지대책반' 같은 것을 만들어 주택들을 돌아다니면서 가스 누출 검사를 하듯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한달에 한번 측정해서 소음이 높은 곳은 자세히 조사해서 방음벽을 튼튼히 만들게 할 것이다.

서로서로 도와가고 양보하며 소음을 줄여가면 소음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서울시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봤자 시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소음을 줄이거나 서울을 위해 힘쓰면 시민 하나하나가 서울시장이고, 주인공이라 생각한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더 주변 사물에 관심갖는 서울시민이 되어야겠다.



청소년 교통카드

... 4기

CS-4







## 청소년 교통학교 4기

**일시** 2002년 11월 23일(토요일) - 24일(일요일)

**장소** 원주 문막 발보린 경기장, 양재 마루아치 드라이빙 스쿨

**목적** 우리나라 운전자중 90%이상이 잘못된 운전 상식과 습관으로 많은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내고 있고, 교통사고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럽고 위험한 나라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운전을 하게 될 예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운전자세와 상식을 교육하고 안전, 방어운전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운전기술을 배양시켜 운전자와 보해자 모두에게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일정

11월 23일(토요일)	14:00	집 결
	14:00-16:00	문막 발보린 경기장으로 이동
	16:00-18:00	(체험-보조석)급제동, 슬라럼, 짐카나 / (운전) - 카트
	18:00-18:30	치악산 드림랜드 유스호스텔로 이동
	18:30-19:30	식사 및 휴식
	19:30-22:00	야외행사 - 예비운전자로서의 서약 - 캠프파이어
11월 24일(일요일)	7:30	기상
	7:30-8:30	식사
	8:30-9:30	용인으로 이동
	9:30-11:00	차량 전복시 대처요령 교육
	11:00-12:00	양재 마루아치 드라이빙 스쿨로 이동
	12:00-13:00	식사
	13:00-15:00	시청각 교육 및 test
	15:00	마무리 및 해산

## 4기 예비운전자 교육활동



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되므로 연습용 카트로 경기장을 한 바퀴.



②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너무나 부드럽게 차를 정지시키는 기술(급제동)에 모두 감탄..

③ 폐쇄된 코스를 달리는 짐카나는 강사님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옆 좌석에서...



④ 슬라럼이란 장애물을 세워 놓고 이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핸들 조작은 non-cross 핸들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❶ 차막산 밑에서의 차가운 겨울밤은 따뜻한 모닥불과 그리고 다음날의 교육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❷ 차량이 전복되었을 때 차량에서 빠져나오는 방법과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차량안에서 360도 회전을 하면서 깨달음



❸ 슬라럼에서 보았던 non-cross 핸들 작동법을 직접 핸들을 잡아보고 이리돌려보고 저리돌려보고...

## 4기 예비운전자로서 나의 다짐

한혜영(동일여고3)

예비운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전할 때 항상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고  
전후를 잘 살피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로봇보다 정확한 운전으로  
서로가 기분좋은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면 굳이  
의무가 아니어도 즐거울 것입니다.  
다른이의 운전까지 방해하는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유선영(동일여고3)

\* 처음에는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장난스럽게 시작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  
\* 하면서 안전하고 바르게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거 같습니다. 예  
\* 비운전자로서 내 입장이 아닌 길을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안전운행하겠다. 운전을  
잘 한다는 것은 결코 빨리 달리고 오래된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숙련된 기술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가에서도 무조건 운전면허만 뺏다고 운전에 대한 교  
육을 그만둘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치스러운 교통사고 상위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양승안(자양고3)

\* 과속을 하지 않고, 음주운전, 난폭운전등을 안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운  
\* 전을 하면서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습관을 만들겠습니다.

박광덕(자양고3)

\* 과속을 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난폭운전등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운전할 때  
\* 는 내 주변에 가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꼭 살펴보면서 운전할 것이다.

### 전강희(성보고3)

\* 나는 어릴때부터 오토바이를 좋아하였고 많이 타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지  
\* 금은 차에 보다 더 눈길이 가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차를 많이 알아보다 다닐 정도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빠른 속도를 좋아해서 차를 타게되면 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나름대로 안전운전을 하려 애쓸것입니다. 오늘 하루 차 타는 것과 카트 타는 것, 상당히 재미있었고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워서 제가 나중에 운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참고 하여 안전운전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 김진상(성동기계공고3)

\* 오늘 너무나도 많은걸 배운거 같다. 앞으로 면허를 따면 지켜야할 것은 꼭 지키고  
\* \* 다시한번 기회가 된다면 와서 더 배우고 싶다. 나의 다짐은 첫째로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않는다. 둘째 양보심을 기른다이며 운전을 하면서 지켜야 할 것은 꼭 지키다.

### 안상태(도당고3)

\* 운전이란 아주 단순하고 쉬운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의 모의체험을 통해서  
\* \* 운전이라는 것이 아주 위험하고 힘든 것이란 것을 깨달았다. 사고는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고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여 사전에 예방해야 하겠다. 항상 안전운전 해야쥐~

### 조범진(동작고3)

\* 오늘 오랜시간동안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만은 배운 것 같다. 정말 재  
\* \* 미있고, 뜻 깊은 하루였다. 정말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적인 것들은 꼭 지키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사각지대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인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사이드미러의 조정을 반드시 해서 사각지대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 최재호(인현고3)

\* 나는 면허를 따면싼 중고차를 사서 2-3년동안 타고 다닌 후에 미쓰비시 랜서 에  
\* \* 볼루션을 살 계획인데, 과속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무사고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김동진(경성고3)

- \* 첫째로 보행자의 시선에서 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저 역시도
- \*\*
- \* 보행자이기 때문에 운전시 보행자를 생각하며 운전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해진 규칙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사소한 규칙, 법규는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나치는 법규에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생각하고 음주운전, 과속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 이도환(서울고3)

- \* 오늘 경기장에서 배운 운전법등은 앞으로 내가 운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
- \*\*
- \* 니다. 하지만 카트를 타는 시간이 조금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금 부터 배우는 것도 열심히 들어서 훌륭한 안전을 지키는 운전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조병기(서울고3)

- \* 지금까지 몇 가지 체험을 해보았는데 무척 흥미로웠고, 카트를 타는 시간은 조금
- \*\*
- \* 짧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더 열심히 참여해서 예비 운전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준비하겠습니다.

### 유재상(청량고3)

- \* 우선 내 몸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겠고, 더불어 보행자도 고려하는 운전자가 될 것
- \*\*
- \* 이다. 안전한 운전법을 정확하게 배워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 권영지(동일여고3)

- \* 신호를 잘 지키겠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차선을 잘 지키겠다. 항상 주위를
- \*\*
- \* 살피며 과속하지 않겠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겠다. 아무리 차가 낡아어도 항상 바른 마음으로 교통 규칙을 잘 지키겠다.

### 이한샘(동일여고3)

- \* 운전자로서의 안전수칙을 지키겠다. 차와 차간의 질서 뿐 아니라 보행자를 생각하
- \*\*
- \* 는 운전자가 될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지않고 사고가 날지라도 절대 뺑소니치지 않고 내 책임을 다하겠다. 주위 사람이 내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겠지요. 보행자를 내 가족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혜원(동일여고3)

- \* 안전운전은 기본. 나는 운전자면서 보행자
- \*\*
- \* 앞뒤엎 두리번 두리번 상황파악 잘하자. 책임감있는 운전자가 되자.

양명희(동일여고3)

- \* 법을 지키는 것은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음주운전, 과속운전 이
- \*\*
- \* 런 것들은...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안전을 생각하는 운전습관과 걸어 다니는 보행자를 생각하는 안전운전습관인 것 같다.

김경미(동일여고3)

- \* 운전을 할 땐 스피드가 아니라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이 제일이라고 생각
- \*\*
- \* 한다. 내가 운전자일땐 반드시 보행자의 안전을 준수해야한다는 것을 느꼈다. 올바른 운전태도를 배웠고 앞으로도 배운데로 지켜가야겠다. 오늘 나의 죽을 뻔한 사고를 겪으면서 더욱더 안전을

강민정(동일여고3)

- \* 직접 자동차에 타고 보니 예상치 못한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도
- \*\*
- \* 생각해보았고, 제대로 알고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까 장애물 통과 코스에서 너무 많이 부딪혀서 너무 아프고 무서웠다. 이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보행자들을 우선으로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되도록 잘 배워야겠다.

송경미(동일여고3)

1. 보행자부터 생각하는 운전자가 될 것이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킬 것이다.
3.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4. 안전을 중시하는 운전자가 될 것이다.
5. 과속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6. 예비운전자로서 상대방을 고려하고 기술을 배워 올바른 운전을 하겠다.

## 2002 청소년 교통학교 참가자

강민정(동일여고3)	고우리(동일여고1)	권영지(동일여고3)
권재선(한성여중1)	권정원(봉원여중2)	김건아(성산중1)
김경미(동일여고3)	김기범(충암고2)	김도희(동일여고2)
김동진(경성고3)	김동현(대일고1)	김명수(충암고2)
김성남(충암고2)	김은영(동일여고2)	김재민(대일고1)
김재영(명지중1)	김정연(대림중1)	김지은(동일여고1)
김지혜(한성여중1)	김지희(서초고1)	김진상(성동기계공고3)
김형운(신목중1)	김혜지(한성여중1)	김홍배(대일고1)
노미란(한성여중1)	박광덕(자양고3)	박선형(한성여중1)
박소영(한성여중1)	박은지(한성여중1)	박한별(백양중1)
박한솔(백양중1)	박현화(저동중1)	배춘목(아현중2)
서현진(진명여고2)	서혜영(동명여고2)	서혜원(동일여고)
송경미(동일여고3)	신상훈(성재중2)	신선한(봉원여중2)
신소희(한성여중1)	안상태(도당고3)	양명희(동일여고3)
양승안(자양고3)	엄태웅(계남고2)	오지영(동일여고1)
유선영(동일여고3)	유재상(청량고3)	윤지아(한성여중1)
이도환(서울고3)	이샘(동명여고2)	이설희(윤중중2)
이소영(봉원여중2)	이수연(세화여중2)	이찬형(선정고2)
이한샘(동일여고3)	이현영(서초고1)	임지연(상도중1)
임효진(한성여중1)	장윤주(상신중2)	장윤희(동일여고2)
전강희(성보고3)	전혜리(세화여중1)	정승아(진명여고2)
조범진(동작고3)	조병기(서울고3)	조아(한성여중1)
조우경(상도중1)	최원용(신목중2)	최재호(인현고3)
최하늘(대림중1)	한혜영(동일여고3)	황세연(동덕여고1)



## 2002 청소년교통학교

발행처 도시연대 시민교통환경센터

발행인 강병기

편집인 김은희

주 소 서울 마포구 창전동 2-28(2층)

전 화 02-332-6044

전 송 02-332-6010

홈페이지 [www.dosi.or.kr](http://www.dosi.or.kr)

이 메 일 [dosi@dosi.or.kr](mailto:dosi@dosi.or.kr)

### 디자인·제작

Design by 화수분 (02-338-1857 [skyavec1@hanmail.net](mailto:skyavec1@hanmail.net))

이 책자는 서울특별시 지원금으로 출간되었습니다.











2002

청소년교통학교

도시연대 시민교통환경센터